

성품, 인성을 말하다

2023 학년도 제 1 학기	과목명 : 성품논어	담당교수: 이천승	검인	A+
대학 미술학과	학부(과, 전공)	성명	한글: 송 정 민 한자: 宋廷珉	
학년: 2	학번: 2022313450			

시험 문제: 유인자 능호인 능호인

제 목: 인(仁)으로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코이팅 기르

열다섯의 정민아, 네 일기를 최근에 다시 펼쳐봤는데 요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이 많더구나.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온 칭찬과 반장으로써 긍정적 평가가 끊이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노력하고 있더구나. 스물 한 살의 나 또한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며 일기를 쓰고 있단다. 아, 그렇다고 지금의 너와 다르게 하나 없다고 실망하지는 마라. 그래도 6년을 더 살면서 내가 느낀 점이 많아. 특히 요즘 논어를 공부하는데, 여기서의 배움이 너에게도 배움이 되어 너의 고민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스스로 사행작조를 겪어보고 깨닫는 것도 의미있지만, 이 논어를 고려하면 옛 명언집이 아니라 미리 인생을 앞서 살아본 스승의 공짜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드린다면 분명 도움이 될거야. 이를 바탕으로 너에게 전해줄 말이 있어 편지를 쓰게 됐어.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너의 삶에 '반장'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된 시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계속해서 반장의 자리에 서 있지. 미리 말하는데, 고등학교 때 진교화장을 거치고, 대학교 2학년 나는 지금 학과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렇게 점점 사람의 단위가 늘어난 더 큰 세상의 리더의 삶을 살게 될거야. 너의 지금은 그저 친구들이 너를 따르는 것이 좋아서, 사람이 좋다는 이유로 리더가 되고자 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그러나 앞으로 높은 자리에 설수록 그 무게가 무겁고 따르는 무서워진다.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디에 있는 간지는 행실을 조심해야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 그 과정에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도 분명해질거야. 그러나, 여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합당해보이는 같은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너마저 그런 마음을 단정짓고 이를 행동으로 표출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봐야해.

있그제 광화문에 있는 카페에서 과제를 하던 와중에, 한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다른 고객 분들의 불쾌감을 샀다는 컴플레인이 들어갔는데 직원분이 와서 나가달라고 부탁하셔서 거야. 근데 그순간 지적 장애인분께서 '악!' 소리를 지르셨고, 소란스럽던 카페는 한순간에 조용해졌어. 문득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형준이가 떠올랐어. 너 요즘 형준이 때문에 적지않게 스트레스 받고있지? 형준이가 갑작스러운 소음과 폭언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불쾌감을 샀고, 이 이유로 친구들은 형준이를 멀리하고 있지. 물론 너를 예뻐해주신 담임 선생님께서 너에게 형준이와 적당히 친구가 되기위하면 좋겠다고 하였고, 너는 반장으로서의 자아와 열다섯의 송정민의 자아 사이에서 양가적인 마음으로 갈등하고있을거야. 지금 그런 너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스스로 객관적인 기준을 갖을 수 있는 '내면의 코이팅 길러라'야. 이 코이팅을 기르는 과정은 많은 인내와 내적 성장을 요구하지. 반장 하나 하는 그 단순한 자아가 십오년간 지배해온 본성의 자아를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나 공자에 의하면 누구에게나 본래 주어진 교육한 '인'한 본성이 있어. 이 마음은 여러 삶의 여정 속에서 혼동되거나 흔들리고 잊고 살지. 그래도 지금처럼 네가 타인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인하고자 하는 마음의 작은 불씨'라고 생각해. 이 인(仁)의 마음 비록 작지만 원천적인 힘이라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굳은 신념으로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거야.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공자의 말씀이 있는데, '썩은 낚지만 썩지 않는 것도 있으며, 썩은 피알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있다.' (표불수자유의부며 수이부실자유의부인지) 라는 구절이야. 뜻대로 만들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한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따르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열매를 맺기도 할텐데 여기서 '열매' 즉 보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인정, 명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보상 또한 있단다. 이는 대체말해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알게 해 줘. 아예 왜 보상이지 살겠지만,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통찰력이 너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라는 의미란다. 더 나아가, 네가 타인을 그렇게 평가하듯 입장을 바꿔 생각해본다면 나를 누군가가 좋아해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의 잣대를 받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미움받을 용기'는 이룰수없이 필요해.

바로 '인'을 활용하는 건데, 공자는 인의 실천 방법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자신과 관련된 '일상'에서 찾으라고 충고했어. 더 나아가 '결사'도 즉 내 마음을 갖대로 삼아 타인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 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헤아리고, 평생보다는 공감으로, 형편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이때, 형편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슬슬 깊이 잡히지?

그런데 이런 인(仁)에 의해 움직이는 이러한 정서적인 배려가 리더의 덕이, 아니 어쩌면 인간의 도리를 잘 알면서도 현실에서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아. 이를 실천하려면 희생수범을 행하고 흔히 '희생'이라는 단어가 뒤따라오거든. 실제로 내가 앞으로 더 큰 자리의 리더가 될수록 "멋지다"라는 말보다 "힘들겠다. 불쌍해"라는 말을 더 듣게 될거야. 흔히 총대맨다고 표현하거? 스물한 살의 용감인으로 필다섯의 너의 마음, 아니 어쩌면 처음 반항을 한 열살 때부터 자전스럽게. 이 자리가 좋고, 앞에 나서서 인용하는 게 행복해서, 그리고 내 삶을 더 특별하게 해주는 것 같아 해온 건데, 이런 소리들을 듣다 보면 점점 나 스스로 혼란스러워 묻게 돼. '리더란 총대맨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이게 진짜 정의인가?'. 그래서 오기가 생겼어 나 또 오르게 약삭같이 살게 된다?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 체력과 시간을 공동체를 위해 소모하지만, 결국 개인으로서의 발전으로 헛되이 살고 있거 아니냐고, 당신들만큼이나 학생의 본분도 챙기고 있다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슬프게도 이런 오기가 리더십의 원동력이 된 삶은 결국 공방 고갈되기 소진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때로는 너 자신이 이렇게 사는 삶이 희생적이고 미련하다고 할 때, 그 소리에 좌절하지마. 눈여겨 공자는 이렇게 말해 "사랑다운야 사랑이다.". 네가 가진 '인'을 또 다른 말로 '사랑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저의 인의 실천을 희생이라는 단어로 단정지어 미련하다 말할 때조차 사랑하고, 사랑다운을 멈추지 않는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진정한 성숙한 인간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네가 가치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가치있는 선택을 이루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인자신난이후회', 이런 사람은 어려운 일에 먼저 나가고 대가를 얻는 것을 뒤로한다. 이 구절이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사랑하는 인을 실천하는 리더상이라고 생각해.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공동체의 구조를 구축해나가는 중심이 되고자 하는 거야.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인 '나와 타인'은 개별적인 존재면서도 같은 인간이잖아. 어려운 일은 너무 어렵고 타인도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위해 네가 조금만 더 애써본다면 사람들은 고마워하면서 너를 진정한 리더로, 네가 원하는 시선으로 너를 쳐다봐줄거야. 이런 사랑다운을 실천하는 인의 작은 행동 하나가 타인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때 네 주변에는 사랑이 자전스럽게 오르게 돼. 이게 바로 눈여겨 주는 자애이고, 6년 앞서 살아온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야.

성품色, 인성을 말하다

2023 학년도	제 1 학기	과목명 : 성품노어	담당교수: 이주상	검인
----------	--------	------------	-----------	----

원과	대학 영어영문학과	학부(과, 전공)	성명	한글: 경운재	한자: 廉隱綵
	학년: 2	학번: 2022312793			

시험 문제:	인(仁), "小佳仁者能好人, 能惡人 (오직 인간 본성에 맞게 사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실로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다)."
제 목:	인자의 삶의 품격

"小佳仁者能好人, 能惡人" (유인자능호인, 능오인) 공자의 「노어」에 나오는 이 구절은 '오직 인간 본성에 맞게 사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별개의 감정이 아니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동양권도의 감정과 대적점을 이루는 것이 윗머양의 감정이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미워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구절에 따르면, 이러한 능려운 仁者 (인자, 어진 사람), 즉 인간 본성에 맞게 사는 사람만이 갖출 수 있다. 즉, 인간 본성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거나 미워하더라도 그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인간 본성에 맞게 사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성'에 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성이란 '있는 그대로의 것', 자연적인, 본래의, 타고난 성질 등을 의미한다. 즉, 꾸밈이나 부채 없이 대상의 있는 그대로의 성질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자란 "인간 본성을 등시하며, 꾸밈이나 부채 없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바라보는 사람" 정도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두고 '대인'이라 칭한다. 대인은 타인에 대한 판단과 추구를 세울 때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며, 본래의 성품과 생각, 가치관 등 상대의 '내면'에 집중한다. 특히 대인이 추구하는 것은 가치관일 것이다. 왜냐하면 가치관은 양해를 비롯하여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기동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인간 본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대신 외모와 재력, 학벌과 직업 등 상대가 지닌 외적 조건과 환경을 미루어 상대를 판단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두고 '도인'이라 칭한다. 도인은 상대가 지닌 본연의 모습과 내면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에 집중한다. 1,000 즉, 상대의 외적 조건에 따라 '선입견'을 지니고 대외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인이 중요시하는 외적 조건은 말 그대로 '조건'일 뿐 상대 본연의 모습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외모, 재력과 같은 조건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며, 좋은 학벌과 직장이 곧 그 사람의 좋은 인성을 반영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인의 타인을 향한 사랑 혹은 미움은 왜곡된 것이며, 결코 진실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필자는 과거의 개인적 경험을 떠올리며 이 구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작년 봄 대학에 갓 입학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갔을 때, 나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나는 그들이 지닌 생각이나 가치관보다는 출신 지역, 학교 등 외적 조건에 주목하였고, 좋은 조건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의 그러한 욕심을 맺어진 인간관계도 대부분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이들은 있었고, 점점 진실된 관계로 발전하더라도 1,500 그 이후에 외적 조건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우정의 계기로 대화를 나누게 된 사람들 중에서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친구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들과 맺은 진실된 인간관계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온 있다.

“성균 色”, 인성을 말하다

2023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아이캠퍼스(GEDC010_11)
--------------	------------	--------------------------

마더가톨릭대학교 학부(과, 전공) 학번: 2022가2480	성명	한글: 허은아 한자: 許恩兒
담당교수: 이 천 승	검인	

주제: 인(仁) - “인자의 품격과 자격”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제목: 모두의 봄을 ‘인’과 함께

“딸! 벌써 외살의 봄이 왔네?”
평생을 양가의 막내로 살아온 나는 어른이라는 수식어가 여전히 낯설다.
어리숙함이 익숙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해주는 스무 살은 고등학생 때와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고작 1년 차이인 스물하나, 이제는 정말 어른이 되어야 할 것만 같다. 마치 스무살은 어릴 체형만이고, 보복적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랄까. 체형만을 거쳐 ‘라운드’에서 헤매고 있는 나는, 석정보다는 두려움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새롭고 신기한 게임판에서 나는 태 줄이지 못하고 두려워할까? 아아 사랑도, 이해도, 배려도 짐차 식어가는 세상이 전보다 현실스럽게 타 닿이 때문인 거 같다. 요즘의 사회는 적당함에는 눈치조차 주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완벽하고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여 스스로를 경쟁의 쳇바퀴 안에 가둬버려곤 한다. 이렇게 스스로 건 회면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혼자 살아간다는 삭막하고도 외로운 사회를 만들어 버린다.
[사랑으로 사랑답기]
공자는 사람다움을 잃은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것까지의 조건을 남기셨다.
‘애민 愛人’ 남을 나처럼 사랑해라.
사랑은 공자가 강조하는 인을 구성하는 덕목 중 가장 핵심이다.
더하여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너무 미우면 아예 사랑해버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남을 해부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과민을 막아준다.

인은 '사람 인'과 '두 이'가 합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결국 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호자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랑이 가장 명확한 답이며, 사랑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된다면 공자가 꿈꾼 세상에 크게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많은 사회 문제 중 절반은 늘 갇혀있는 새 사라지게 될 거라 예상한다.

['인 仁'의 능력]

우리가 사람다움을 잃은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엄격한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는 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것에 역겹히 혐오하며 눈을 반짝인다. 사실 나 또한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행동을 피하지 못한 순간이 더러 있다.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바로 노아의 인(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어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또한 미워할 수 있다."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으려면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지금의 우리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를 하나의 오락처럼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대부분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편협하고 오만한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공자께서 강조하셨듯, 사심이 없는 공정한 마음만이 옳고 미워할 것을 제대로 가릴 수 있다. 즉, 인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호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인자의 품격을 갖추어 선과 악을 판별하여, 선과 가까워지고 악을 멀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다.

하지만 세상 모두가 인자의 품격을 갖추었다면 이미 법과 규정은 사라지고 없을 터.

따라서, 나는 현대판으로 정면하고자 한다. “나부터 실천하다.”

[모두의 봄을 '인仁'과 함께]

공자는 인을 실천 우리의 미명으로 삼고, 모든 것이 기초는 인(仁)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인의 핵심인 사랑과 인의 품격을 갖추려고 노력한다면, 이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 라운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만남’ 단계에서 취청거리며 버티고 있는 사람들 모두, 주위 환경을 돌아보고 쉬어 가는 여백의 시간이 필요하다.

봄에 부는 바람은 겨울바람보다 매섭지 않다. 그래서 빙설하다 보면 금방 감기에 들어 버리기 쉽다. 나는 세상의 수많은 감기 따위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길 바란다. 세상은 각자에게 생채기를 만들지먼징, 사랑은 서로에게 ‘인’이라는 연고를 주며 주어야 한다. 온전히 봄의 따뜻함만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와 서로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세상이 되길 희망한다. 그도 인해 모두의 봄에 ‘인’의 따뜻함으로 풍만한 꽃들이 피어나길 응원한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3 학년도 제 1 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월요일 11 시~12 시
-----------------	------------	-----------------------------

스포츠과학과 (과, 전공) 학번:2022311071		성 명	한글: 이예진 한자: 李睿晉
담당교수: 김 미 라	검인		

주제: 인(仁) - “인자의 품격과 자격”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제목: 경쟁 사회 속 지녀야 할 인(仁)자의 마음가짐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업을 듣고, 카페에 가서 과제를 하고, 오후에는 알바에 갔다가, 기숙사에 돌아가기까지. 분명 모든게 똑같았다. 다들게 있었다면 항상 같이 다니던 동기들 없이 혼자 보냈던 하루였다는 것? 고작 그게 다였다. 누구나 지내고 있을 법한 지극히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날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계속 웃음이 났다. 알바를 가는 발걸음도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도 가벼웠다. 특별할 것도, 모자랄 것도 없었던 그 하루가 도대체 왜 유난히 좋았던 것인지, 나는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 아이는 다름아닌 바로 ‘여유’였다. 평소와 같은 하루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좋았던 이유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날의 나에겐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한 줌의 ‘여유’가 주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다른 의문이 들었다. 분명 똑같은 하루였는데 왜 나는 하필 그날 여유를 느꼈던 것일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머지않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그날 여유를 느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경쟁’이라는 요소와 압박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 나는 팀플 준비를 하며 극에 치닫는 스트레스, 갈등, 압박감 속에서 ‘경쟁’이라는 요소와 싸웠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싸워야만 했다. 여기 까지만 들으면 앵? 팀플이면 다같이 준비하는 거니까 개인이 하는 일은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 혼자 하는 과제보다 경쟁이라는 요소는 덜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속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듣게 된다면 그 생각이 180 도 바뀔 것이라고 감히 예상한다.

우선 이 팀플은 10 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던 대형 팀플 과제였다. 인원이 많다는 것은 개인이 할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요소일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들의 노력에 묻혀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확률 또한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걱정은 아니나다를까 이번 팀 활동에서도 적용되었는데, 과제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과반수도 넘지 않았다. 솔직히 얘기하면 4 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과제는 주마다 나오고, 심지어 그 과제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과제라 모르는 말 투성이고, 발표일은 코 앞으로 다가오고, 아이디어는 턱 없이 부족하고, 팀원들 간의 갈등은 늘어만 가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라도 열심히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한다는 압박감과 다른 팀들과의 경쟁을 넘어서 팀원들과의 경쟁에서부터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다.

바로 이 ‘경쟁’에서 벗어난 날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았던 그 날이었다. 전날까지 밤을 세워가며 발표 대본을 짜고, 발표자료를 만들고, 최종 발표 연습을 하며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친 상태였다. 지친 몸을 이끌고 강의실에 가서 30 분 정도의 쪽잠을 잔 후, 첫 번째 순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를 무사히 마친 후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내 몸에서 쏙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후련했고, 무사히 발표를 마쳤다는 사실에 뿌듯했지만 누가 특하고 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여유’를 느끼며 행복해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왜 ‘여유’라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까? 그 답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과도한 경쟁 사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경쟁’이라는 것에 노출되어 자라왔다.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잡기놀이도 하고 축구도 하며 놀아도 모자랄 판에, 하루 종일 수업을 들은 후에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우리는 곧장 학원으로 향한다. 그 안에서도 더 진도가 빨라야 하며,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며, 경시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야 한다. 이것이 끝인가? 아니다 어릴 적의 경쟁은 경쟁의 축에 끼지도 못한다. 20 살에 가까워질수록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심한 경쟁을 하며 살아간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남’들보다 잘해야 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했다.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 아니 그게 무엇이든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공 曰, “한 마디 말씀으로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 공자 曰, “서惇이리라.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바라지 말라.”

“인자는 자신이 서고 싶으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면 남도 이르게 해준다. 자기와 가까운 데서 취하여 비유할 수 있으면 인을 실행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을 나가서는 마치 큰 손님을 만난 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마치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해야 한다. 자가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남에게 바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 안에서도 원망이 없고, 집안에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

공자 曰, “나의 도는 하나의 이치로써 꿰뚫었다.” / 증자 曰, “스승님의 도는 충忠과 서惇일 뿐입니다.”(충 忠 - 최선을 다하는 마음 [盡己], 서 惇 - 남에 대한 배려의 마음 [推己及人])

공자는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바라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남도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이 말이 현재의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A+ 이라는 점수를 받고 싶다면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 너무나도 쉽다. 그저 착실히 수업에 참여하여 출석 점수를 챙기고, 과제의 기준에 적합하게 충실히 수행하고, 배운 내용들을 열심히 복습하고, 자신의 노력에 비례하여 시험을 열심히 보는 것 그게 다다. 이 중 그 어떤 것에서도 경쟁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이 어떤 점수를 받는 가는 ‘그들’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그들의 점수를 의식하며, 그들의 점수를 낮춤으로써 우리가 올라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가? 왜 자신은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최고의 점수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인가?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지만 남의 행동에 대해서는 칼 같은 면이 존재한다. 타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눈에 불을 키고 잡으면서, 정작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에이, 이 정도는 부정행위가 아니지” “남들은 더 하잖아” 와 같은 말도 안되는 변명만을 늘어놓는 것처럼 말이다.

공자가 이야기한 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자신이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남들을 깎아 내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들과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타인이 행한다고 생각했을 때, 옳지 않은 행동이라면 본인 역시 그 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맹자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인(仁)자의 덕목이 숨겨져 있다. 바로 자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것이다.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 (배움에 시간을 들이고 연습한다면 즐겁지 않겠는가?) 공자는 말했다. "지식을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나은데,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나은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지식을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현재 과도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등 자기 스스로와도 경쟁해야 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피 터져라 죽도록 경쟁해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이런 끝없는 경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등이 아닐까 싶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즐기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체육교사’라는 직업이 아닌,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직업, 안정된 직업인 ‘경찰’ 꿈꿔왔다. 경찰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찰 행정학과에 진학해야 되고, 경찰 행정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 높은 성적, 강한 체력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당연하게도 그 직업을 가져야만 했던 나는 로봇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기계처럼 교과서를 달달달 암기하며 시험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체육이 압박으로 다가왔고 전혀 즐겁지 않은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이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을 때쯤, 학교에서 매년 진행하는 대학교 학과 소개 행사를 접하게 되었다. 대학생들이 직접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자신의 학교와 학과를 소개해주는 행사였다. 나는 다양한 학과들 중 유독 하나의 학과에 눈이 갔다. 바로 ‘체육교육과’였다. 경찰학과의 없었던 탓이었을까? 아니면 무의식 중에 깊숙이 잠자고 있던 나의 열망이 나온 것일까? 그 이유가 어찌됐건 행사 당일 한치의 고민도 없이 체육교육과 교실로 향했다. 분명 내가 가지고자 하는 직업은 경찰이고 이과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아는데, 나도 모르게 그 과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성적 커트라인은 어느정도 되는지 등을 너무나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심지어 소개자료를 사진 찍고, 메모장에 중요 사항들을 정리하기도 했다. 학과 소개를 마치고 교실을 나서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체육 교사이구나”라는 것을 말이다. 그 자리로 곧장 교무실로 향했다. 그러곤 담임 선생님께 말했다.”선생님 저 꿈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당시 반에서 1,2등을 다투고 있던 학생이 안정된 직업을 놔두고 진로 변경을 한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게다가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꿈에 따라 학급을 나누고 그에 맞는 맞춤 활동을 진행해주는 학교였기 때문에 꿈이 바뀐 학생들은 전과라는 제도를 통해 학급을 변경해야 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잠시 놀라신 듯 보이시더니 곧바로 내가 전과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금부터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가야 할 지 정리하며 도와주기 시작하셨다. 그 덕분에 나는 수월히 전과를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이 길로 나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대학교에 입학 후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대학생활은 어때?”였다. 그때마다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늘 똑같이 대답한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제 적성에 너무 잘 맞아요” 라고. 좋은 대학교여서?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 전혀 아니다. 대학교에 들어온 순간부터 동아리 활동, 전공 수업, 다양한 대외 활동들을 하며 단 한번도 이 과에 들어온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 공부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솔직히 나는 전공 수업을 듣는 게 너무나도 재밌다. 스포츠라는 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스포츠에 관한 내가 몰랐던 사실들, 새로운 학문들에 대해 배울 때마다 매우 신선하고 흥미롭게 다가온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즐기는 자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실제 경험을 통해 몸소 느끼고 있었던 덕분인지, 공자의 “지식을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나은데,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나은 것이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공감이 갔고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그 경쟁 사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안다. 물론 그 경쟁 사회를 없애야 된다! 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경쟁이 수반되지만 그 속에서 남들을 꺾아 내림으로써 본인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최선을 다함으로써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선을 다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의 것이라 생각하고 즐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 까지가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즉 내가 처음 가졌던 “왜 평소와 같은 하루였지만 평소보다 더 행복했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경쟁을 슬기롭게 다스려갈 때, 비로소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경쟁이 없기에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유는 늘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경쟁 속에서 내가 가지는 마음가짐에 따라 여유가 나타나기도 보이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3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목/13:00-14:45
학부(건설환경공학과) 학번: 2022312722	성 명	한글: 류준우 한자: 柳俊佑
담당교수: 윤민향		

주제: 인(仁) - “인자의 품격과 자격”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제목: 나는 왜 논어와 사랑에 빠졌는가?

요즘 수업 중에 가장 재미있는 수업이 ‘성균 논어’이다. 왜 난 다들 진절머리내는 논어에 빠지게 된 걸까? 답을 찾기 위해선 ‘나’라는 사람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나는 2003년생에 포항에서 태어났.. 이런 고리타분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나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친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소개하겠다. 먼저 초등학교 시절에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모든 호기심 많은 학생이 그렇듯 난 수업 참여에 적극적이었고, 선생님들이 일부로 내 질문을 피하실만큼 질문을 많이 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이 날 좋아하지 않았다. 그때 난 처음 ‘눈치’라는 것을 배웠다. 중학생이 되어 학교엔 ‘일진’이라는 계급이 생겨났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 나는 그 계급이 아니었다. 하지만 다행히 초등학교때 배운 ‘눈치’를 사용하여 무난하지만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한다. 아무도 모르는 학교에 혼자 진학한 나는 학기 초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매우 어려웠다. 우리 학교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자사고였지만, 친구들의 인성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학기 초에 이미 학교에서 무리를 형성한 친구들은 자기들끼리만 지냈고, 다른 친구들은 같은 반임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친해지려고 하면 앞에서는 받아주며 뒤에서는 친한 척한다고 이야기했다. 어떤 친구가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있으면 ‘너 그렇게 해도 나보다 성적 안 나와’같은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다. 이 얘기를 들은 주변 친구들은 깔깔댔다. 난 혼란스러웠다. 분명 중학교 때 내가 생각한 선은 이런 방향이 아닌데 모두가 동조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중학교에서 혼자 온 내가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엇나가서는 안 됐다. 반박을 해서는 안 됐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눈치’를 사용했다. 무엇이 맞는지 모르니 다른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에게 맞추는 법을 익혔다. 점점 내 주관의 생각이 사라졌다. ‘나’를 숨겼다. 모두에게 모든 것을 맞추었다. 저녁메뉴조차 내가 고르지 못했다. 오로지 ‘눈치’만이 남았다. 고도로 발달했다. 표정만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될 만큼. 내 행동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내 생각과 행동이 어떤 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옆에 앉은 사람들의 생각에 모두 맞추었다. 난 배려 잘하는 사회성 높은 학생이었다. 그렇다고 위로해야만

했다. ‘눈치’가 나의 전부였으며, 어쩌면 ‘나’자체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이런 절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기 힘들어졌다. 심지어 이런 행동을 했던 1학년 친구들도 성숙한건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힘들만한 사건은 앞으로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 편안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다. ‘사회 주류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았다. ‘무엇이 과연 올바른 행동이고 무엇이 선일까?’. 마음 한 구석에 이 질문을 방치한 채 졸업했다.

이렇게 미결의 문제를 간직한 채 대학생 2학년이 되었다. 필수과목인 성균 논어를 수강 신청하며 공자는 그 답을 알기를 기대했다. 열심히 들었다. 그런데 공자는 그 답을 내지 않았다. 나의 고등학교 시절을 판단하지 않았고 무엇이 옳은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자꾸 ‘인’하게 살라고, 나와 남을 사랑하라 할 뿐이다. 답답했다.

그러다가 충의 개념에 대해 수업시간에 배웠다. 임금과 장군 사이 충의 관계를 생각한 나에게 진짜 충의 의미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충이란 나의 중심, 즉 생각에 최선을 다하는 것. 공자는 알고 있었다.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 틀렸다는 것을. 무엇이 되었든 나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했다. 남이 내주는 결론과 남이 내주는 옳음은 옳은 것이 아니었다. 옳고 그름은 ‘나’의 생각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에세이의 주제인 ‘유인자惟仁者 능호인能好人 능오인能惡人’도 같은 결이다. ‘인한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구절은 자신의 마음에 충한 인한 사람만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나’가 있어야만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데 ‘나’가 없으면 대체 옳고 그름은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나’가 없는 사람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질문의 답을 찾고 있던 것이다.

‘나’의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나하나 다시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블로그에 글을 써보며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재구성하기도 해보고, 자아나 자존감에 대한 책도 몇몇 읽어보았다. 남들에게 나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나를 표현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었다. 나를 더 잘 알게 되었다. 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나의 생각에 확신이 섰다. 어느새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를 숨기지 않으니 힘들 일도 없었다. 논어와 공자에게 큰 빛을 진 듯했다. 하지만 안주할 수 없었다. 논어와 공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나의 생각이 있다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 답은 뜻하지 않게 수업시간 발표 구절에서 찾았다.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세상에 처할 때,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의만 가까이하고 따를 뿐이다.” [「이인」10장]. 공자의 대답은 명쾌했다.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 단지 그 기준은 의일 뿐이야!’. 의는 인하게 사는 실천 방안이다. 즉, 인하게 사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사랑하며 살라’. 내가 그렇게나 답답해하던 그 말이 공자의 대답이었다. 프라이 팬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깨달음이었다.

세상살이에서 사랑은 모든 방정식의 해이다. 물리학의 대가 리처드 파인만 또한 이런 말을 남긴다. ‘physics isn't the most important thing, love is’ 세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인 과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다. 모든 종교에도 공통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이 들어가 있다. 음악의 80퍼센트가 사랑노래라고 한다. 앞선 시대에 산 수많은 사람들이 얻은 깨달음이 사랑의 힘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 또한 이 사랑의 힘을 믿는다. 사랑하고 살면 세상은 아름답다. 사랑의 눈빛 속에서는 갈등이 설 자리가 없다. 위층에서 쿵쿵대는 윗집도 부모님이 어린 아이와 재밌게 놀아주는 장면을 생각하는 순간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심란한 마음은 추스러든다. 옆에서 잠도 안 오게 코고는 룸메이트도 오늘 고된 하루를 지냈을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레 그 코골이마저 사랑하게 된다.

인한 사람은 항상 사랑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의 실수마저 사랑하고, 남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인한 사람의 품격이자 가치이자 조건이자 자격이다.

공자는 논어로 하여금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고, 룸메를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종교인들과 리처드 파인만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그 눈빛으로부터 논어와 공자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내가 논어와 사랑에 빠진 이유이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3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월요일 15시~17시
--------------	------------	--------------------

학부(국어국문학과) 학번: 2022312164	성 명	한글: 정지윤 한자: 鄭知允
담당교수: 김 단 영 검인		

주제: 인(仁) - “인자의 품격과 자격”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제목: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한 사랑이다

사춘기가 되니 사람이 만사 귀찮더라. 하루 일과동안 마주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뻔하고 지루했다. 아마 그 절정은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것이다. 그 시절은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동급생들 모두가 질풍노도의 시기였고, 우리는 참 어렸고, 누가 더 치기어리고 유치한지 시합을 하는 것만 같았다. 나도 그 시합 속에 있었지만 딱히 이기고 싶진 않았다. 사람이 싫었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모순적이고, 앞과 뒤가 다르며 자기 잇속만 챙기느라 타인에게는 철저히 냉정해질 수 있는 존재 같았다. 지금 회고해보니 나는 그 시절 화에 취해있었던 것 같다. 나는 그때 내가 화가 난 줄 몰랐었다. 오히려 매일이 덜 마른 빨랫감을 입고 등교한 것처럼 무기력했다. 단지 사람이란 존재가 너무 속물적이라 느껴져 동급생들과 함께하는 단체생활은 겉으로는 잘 지냈으나 속으로는 한없이 괴로웠고 집에 왔을 때 부모님과 대화도 불편했다. 부모님은 아주 자애로우시고 사람을 좋아하는 지혜로운 분들이셨다. 그래서 더더욱 내 이런 환멸감을 표출하기 어려웠다. 내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 나를 아주 한심하게 바라보시며 “사람을 왜 싫어하니? 세상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라며 꾸짖으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스물 하나의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하지만 열여섯의 나는 오히려 히죽 냉소를 지으며 반문했겠지. 잘 몰라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겠죠. 라고.

집에 오면 책가방을 책 벗어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나 이외에 아무도 없는 완전무결한 공간에서 하릴없이 휴대전화의 그 작은 액정 너머로 좁은 세상만 관망했다. 특히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봤다. 어느 날 나는 <또 오해영> 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유튜브로 우연찮게 보게 되었다. 약술하자면 ‘오해영’이라는 여자는 ‘박도경’이라는 남자와 약혼했다. 둘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그림 같은 사랑을 했다. 시간은 흘러 결혼식 전날. 남자와 여자는 차에 있다. 남자는 “꼭 쉬어. 내일 보자.”라 인사하고 여자는 짧게 고개를 주억거리곤 조수석에서 내린다. 그게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다음 날 결혼식 당일 여자는 끝까지 오지 않았다. 남겨진 남자는 여자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맸으나 결국 그렇게 결혼식은 파투가 난다. 남자는 내내 분노와 의아함에 뒤죽박죽 휘말려 괴로워한다. 대체 그녀는 왜 남자를 떠난 걸까? 알고 보니 시한부였던 걸까? 아니면 한국 드라마의 흔한 설정인 출생의 비밀이 엮여있던 걸까. 하지만 이 중 무엇도 정답이 아니었다. ‘오해영’은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 컸다. 어머니가 수차례 재혼했고 할머니 손에서 힘들게 컸으며 어머니의 사랑에 늘 굶주린 채로 자랐으나 현재 아주 성숙하고 멋진 어른처럼 보인다. 이런 그녀에겐 분명히 애정에 대한 결핍감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녀의 삶 뒷꼐무늬를 계속 따라다녔을 테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티를 내지 않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오히려 더 여유로운 사람처럼 행동하는 법을 익혔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그녀를 반대하던 시어머니, 즉 ‘박도경’의 어머니와 ‘박도경’이 다투는 대화 내용을 어쩌다 엿듣게 된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힘들었던 가정사를 빌미로 그녀가 재혼가정에서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 컸으니 사랑을 주는 법도 모를 거라며 반대했다. 그런 자신의 어머니에게 남자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개 사람들에게 엄청 상냥해. 미움 받지 않으려고. 강아지처럼 살랑살랑. 그런 애를 내가 어떻게

버려!”

“그게 사랑이야? 측은지심이지.”

“측은지심이어도 된다고!”

이 한 마디다. 이 한 마디로 여자는 이 결혼에서 도망간다. 나는 이 드라마의 해당 장면을 보고 몇 분간 충격에 휩싸여 머리가 멍해졌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하다. 과혼이라는 거대한 결심이 이토록 사소하다니. 그리고 아주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저 ‘오혜영’의 심경이 너무나도 공감됐다. 나였어도 배신감에 도저히 못 들은 체하고 결혼식장에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더 많은 생각이 들게 한 건 이 유튜브 영상 아래의 댓글이었다. 예전에 읽었던 댓글이라 아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충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우리 엄마가 결혼은 사랑만으론 안 된다고 하셨다. 결혼해서 오래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아마 저 영상에서 남자가 여자가 불쌍하다고 한 것은 우리가 불우이웃을 보며 불쌍하다 라고 여기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저 여자의 결핍이 그녀를 사랑하는 본인에게 너무 잘 보이고 그게 너무 안쓰러워 못 견디겠다는 마음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별 것 아닌 드라마의 한 장면과 익명의 누군가의 댓글이지만 나는 이날 기존의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이라고? 애초에 누군가의 잘못이나 결핍을 보고 분노가 아닌 불쌍함을 느낄 수 있는가? 침대에 누워 찬찬히 돌이켜보았다. 우선 내가 왜 동급생들과의 단체생활에서 여러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지부터 되짚어보았다. 그 시절 우리는 무리지어 다녔다. 다른 무리와 배척감을 형성하기도 했고 무리 내에서도 서로 몰래 뒷담화를 나누기도 했다. 다들 쉬쉬하고 넘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헐뜯고 뒤에서 업신여겨보았던 친구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급식을 먹고 체육시간에 조를 지어 체육을 했다. 나는 이러한 광경들을 보며 사람에게 수차례 실망했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나만 느끼는 것 같아 답답했고 사람에게 친근하게 잘 다가가고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내어주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인간의 ‘더러운’ 속성을 잘 눈치 채지 못하는 둔한 사람이라 그렇다 여겼다. 그 시절 나는 내가 무언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잘 보는 사람인 줄만 알았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실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나만의 규칙과 도덕관념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란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나 남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 노력하는데, 왜 다른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쉽게 하고 그러면서도 잘만 지내는 거지?’라는 것에 회의감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

子曰 “人不知而不慍하면 不亦君子乎라”

공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라고 하셨다. 나는 내 도덕적 신념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매일 이 전쟁터같은 학교에서 노력했었다. 하지만 나 홀로 싸운다는 느낌은 나를 외롭게 만들고 심적으로 고립시켰다. 정말로 이대로 내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것인가? 쉽사리 잠들 수 없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 무엇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시간이 흘러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교는 기숙형이었어서 전교생이 24시간 내내 공동체 생활을 했다. 가족보다도 자주 보는 게 같은 반 학우들이었다. 나는 그 중 한 친구와 입학한 첫 학기에 자동으로 룸메이트에 배정되었다. 그 친구는 털털하고, 유순했다. 나는 그 친구의 인간적이고 선한 매력에 반해 중학교 때와 달리 정말 간단에 마음을 열고 다가갔다. 우리는 매일 자기 전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자매처럼 서로를 챙겼다.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과 별개로 안 맞는 부분이 많았다. 청소 주기,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방식, 화법 등등 함께 살기엔 각자 예민한 부분들이 뚜렷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 좋다는 명분으로 자주 다뤘지만 서로 적극적으로 화해했다. 그러길 반복하다 2학년 1학기에서 2학기가 넘어가던 시기, 우리는 열여덟이 되었고 그 친구는 말했다.

우리 이제 룸메이트 그만 하자. 나는 순간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정말 크게 화를 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몇 시간 전에 싸운 것 때문에 그러느냐며, 갑자기 이렇게 통보해버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난리를 피웠다. 하지만 그 친구는 냉랭했다. 나는 그날을 기점으로 룸메이트를 새로 신청하는 날까지 방에서 지내는 모든 나날들이 지옥이었다. 하루는 그 친구와 적막만이 감도는 방에서 잠을 억지로 청하려 하니 너무 화가 나 옆방의 친구에게 달려가 그 친구 옥을 해댔다. 순간적으로 아주 통쾌하고 짜릿했다. 함께 거들어주는 친구가 있으니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눈을 뜨면 어제의 나를 심판하는 내가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그걸로 위로를 받은 못난 나 자신이 한심해서 극도의 자기혐오에 빠졌었다. 그 친구도 내 옥을 하고 다녔다 한다. 하지만 나는 중학교 때의 나와 달리 나조차 나를 저버렸기에 남을 싫어할 수도 없었다. 우울한 나날들이 장마철처럼 이어졌다.

그러다 나는 한순간 내가 안쓰러웠다. 나도 상처받았고, 나도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는데 나의 그런 결핍은 무시한 채 오로지 남 이야기를 뒤에서 했다는 사실만으로 내 자신을 죽도록 단죄한 내가 너무 야속했다. 나도 힘들었는데, 나도 매번 완벽할 수는 없잖아, 나도 사람인데! 속에서 내가 크게 외쳤다. ‘나도 사람인데!’ 라는 마음 속 한 마디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지나갔다.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논어 속의 군자도 아니다. 군자와 같은 마음씨를 지니고 싶었으나 현실에 늘 권태로웠던 어린 학생이다. 물론 뒤에서 남을 욕한 건 잘못되었다. 하지만 내 잘못에 나를 누구보다 엄하게 대하고, 마구잡이로 나 자신을 혐오하는 방향이 옳은 것일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목격한 수많은 아이들도 모두 여전히 불완전하고 앞으로도 불완전할 그저 사람인데 내가 그들에게서 하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발견할 때마다 그들을 무작정 혐오하고 한심스럽게 바라보는 게 과연 옳은가? 그것이 군자의 태도일까? 나라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끌어안아주고, 앞으로 이리저리 말자고 좋게 타일렀으면 내가 덜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일순 몇 년 전 보았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재생되었다. 한 인간의 결핍과 불완전함을 측은하게 여기고 그걸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 나는 어쩌면 나를 사랑하게 되기 위해 한참을 돌아온 것일 지도 모른다. 내 불완전함을 혹독하게 벌하고 다그쳐 몰아세우기보다 나에게 늘 그렇게 시달리고, 내가 나를 공포스럽게 여겨게 만들었던 과거가 안쓰러워졌고,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기로 했다. 너무 모든 게 내가 옳고, 다 괜찮다는 식으로 가셔도 안 되지만 내 기본적인 불완전함을 동정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나에게 너그러워지면, 또다른 ‘나’들인 타인들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룸메이트를 새로 편성하는 시간이 왔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더는 적지 않았다. 기나긴 우정의 종지부였다. 그 이후로도 나는 얼마간 그 애의 얼굴을 보는 게 불편했다. 하지만 더는 예전과 같은 아주 깊은 증오심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애의 입장이 잘 이해가 가기 시작해서 미웠다. 그 애도 분명 나랑 헤어지기 아쉬웠을 테고 그 말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테다. 그럼에도 용기 내어 우리 둘 모두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말을 했을 텐데 나는 거기에 왈칵 눈물을 쏟으며 혼자 상처 받은 사람처럼 굴었다.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오직 인자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다. 인은 어진 마음이고 그 속엔 복합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다. 인자는 자신의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남을 올곧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각박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가장 냉정하고 잔인했던 마음을 벗어던지고 나의 불완전함을 조금은 측은하게 바라보며 이해하고 어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나뿐만 아니라 또다른 ‘불완전한 나’인 다른 이들의 결핍, 그로 인한 잘못 등을 여전히 시비를 가리기는 하나 마냥 분노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나부터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인자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나는 여전히 어설피고, 잘못도 종종 한다. 하지만

나와 타인의 단점을 누구보다 잘 포착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열여섯의 나보다 사람들의 잘못과 동시에 그 이면의 결핍과 다른 좋은 점들을 사랑과 이해로 바라보는 열여덟의 나, 그리고 계속 이어져 현재 스물 하나의 내가 더 인자의 덕목인 공평무사함을 갖추게 되었다. 내 올곧은 시선이 향하는 끝에는 또 한 명의 사랑하는 ‘나’, 각각 자신만의 가치관과 생각과 과거의 결핍, 상처 등을 받고 치유해가며 커온 수많은 ‘나’들이 있다. 미워하는 마음은 싫어하는 마음과 다르다. 미워하는 마음에는 기저에 사랑이 깔려있다. 따라서 단순한 증오를 넘어선 애증이다. 결국 이해될 것 같고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기에,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정이 측은하기에. 이 복합적인 애증이 미움 아닐까.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간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나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부모님이 어찌 열여섯이었던 나만큼이나 사람들의 이중적인 면을 못 보셨겠는가. 부모님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다. 사람이란 존재는 참 이해 안 가면서도 이해가 가는 존재라는 것을. 부모님은 이미 다 아시면서도 사랑해버렸던 것이다.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이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촛불 같지만, 그래도 타오른다. 나도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가끔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가끔은 너무 뜨거워 아프지만 그래도 계속 타오를 테다. 사춘기가 저문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3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수요일/13~15시
--------------	------------	-------------------

전자전기공학부 학번: 2019313208	성 명	한글: 조수원 한자: 趙洙院
담당교수: 금 종 현		

주제: 인(仁) - “인자의 품격과 자격”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
제목: 仁, 혐오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

저는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반장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했던 터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같은 반 친구들을 불러 같이 불량식품을 사 먹고, 축구를 하고, 같이 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릴적엔 집에 컴퓨터 두 대나 있는 집이 많이 없기도 했고, 저희 집엔 또 두대의 컴퓨터가 있고, 각종 오락기기들이 많아서 친구들이 저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친해지다 보니 어느새 전교의 남자아이들과는 모두 친해졌고,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어도 모두 친한 아이들 밖에 없기에 제가 늘 반장을 하곤 했습니다.

다시 돌이켜 보면 아이들이 저를 좋아했던 건지, 제가 가진 오락기기들을 좋아했던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의 저는 나름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친구를 골라서 사귄 수도 있었습니다. 학교엔 모두 알다시피 각 학급에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이 한두명 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의 장애를 가진 아이, 집안 환경이 어려운 아이, 성격이 모나 주변에 친구가 없는 아이 등의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아이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첫 번째는 제가 그런 결점이 있는 친구들을 싫어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의 저는 자신에게 여러가지 이유를 둘러대며 의도적으로 그들과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더한것은, 담임선생님께서 반의 자리를 배정할 때 제가 반장이라는 이유로 그 친구들과 앓게 하면 교무실로 찾아가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느냐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느냐고 놀림을 당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초등학생임을 생각해보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고로 반장이라고 함은, 학급의 장으로서 급우들을 융화시키고, 선생님들과의 징검다리가 되며, 모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급우를 환경이 다르다고 싫어해서는 안됐었습니다.

또, 최근에 본 유튜브 영상 중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여행 유튜버가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는데, 수 많은 소년들이 달려들어 물건을 강제로 사게하고 돈을 뜯어가려 하는 와중에 한 어린 아이가 달려들어 몸으로 막으며 여행자를 지켜주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있었습니다. 몸으로 막아주는 과정에서 주변의 소년들에게 싸대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생활 환경에 본인 역시 힘들테고, 여행자들 돈을 훔치는게 그곳 내에선 편하고, 정상적인 범주의 행동일텐데도 불구하고 여행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본인이 맞으면서도,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용기를 내주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고 어린 시절의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성균색 주제인 '仁者의 품격과 자격'에 대해 고민해보며 떠올려 본 기억들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 오직 '仁'한 사람이야 말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싫어할수도 있다. 금 교수님의 '성균 논어' 수업은 단순히 논어의 한자와 풀이를 읊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닌, 논어 라는 책이 있기 전의 춘추 전국시대의 국가적, 정치적 양상, 공자의 탄생 배경 등의

부연 설명을 곁들여 진행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학기 '성균 논어' 과목 8주차 수업을 듣는 동안 논어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仁'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仁'이란 무엇인가? 우선, 공자는 '愛人' 이라 하여 남들을 사랑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仁者先難而後獲 可謂仁矣'이라 하여 남들보다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이익에 관련된 부분은 제쳐놓는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仁者必有勇, 勇者不必有仁' 仁 한 사람은 반드시 용감하지만, 용기있는 자라고 仁하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공자가 생각했던 '仁者'의 자격 첫 번째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본인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며, 세 번째는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仁者의 자격을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이런 마음을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서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시대적 상황을 돌아해보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심화되면서 예전의 공동체문화가 많이 없어지고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仁者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고만 한다면 아무도 어려움을 견뎌내며 용기내어 남을 도우려 하지 않을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한 현대사회에서의 인자의 품격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 仁者가 되기위해서 필요한 자격은 우선 첫 번째로, 타인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신병 훈련을 마치고 전입은지 얼마 되지 않아 전술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병 훈련때 하던 훈련과는 다른 작전의 훈련이었는데, 미숙했던 나머지 간부님들에게 신병이 왜 일을 못하냐고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난 뒤, 내무반으로 돌아와 쉬던 중, 간부님들 중 유일하게 한 분이 신병인 저에게 찾아와서 괜찮다며 같이 PX를 가자고 하였고, 아이스크림을 사 주시며 본인이 하사때 실수했던 이야기를 해주었고 누구나 처음에 실수 하는거라 위로해주었습니다. 그 간부님은 처음 볼 때부터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굉장히 온화하고 인자한 아우라가 느껴졌었습니다. 이후에도 그 간부님과 조를 이뤄 작전훈련을 한 적이 많은데, 할 때마다 그 분의 모습을 배우려 노력했고, 제가 후임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그 간부님의 태도를 본받으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같이 일을 할때 미숙한 점이 있다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사람을 다독이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다독이는 사람에게서 받은 그 온화한 느낌을 저는 仁한 마음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누구나 미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 仁者의 자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자격은, 타인을 이끌어 공동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이끌어 공동 목표를 성취한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명하고 영감을 주는 사례 중 하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평화적인 시위와 항의로 인종차별과 인종분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헌신은 많은 희생과 위험을 초래했지만, 그는 인종 차별과 인종 분리주의를 극복하고 인권과 평등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인권 운동에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으며, 그의 연설 중 하나인 '나는 꿈꾸는 사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처럼 본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저항을 받더라도 많은 사람들 중 가장 앞에 서서 흑인 인권의 증진을 위해 평등을 얘기한 사례는 충분히 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고로 仁者라면 타인의 앞에 설 수 있거나, 타인을 위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격은, 성실히 진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仁者라고 함은 남들에게 있어서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仁者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전교 1등을 입학때부터 놓친 적이 없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문득 그 친구의 공부법이 궁금해져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너의 공부법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공부 방식에 대한 답변이 들어올 줄 알았지만, 공부 '태도'에 대

해 답변이 들어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줄곧 시험기간만 되면 이주 정도 밤을 새가며 급하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 친구는 시험기간 이랄 것 없이 매일 매일 꾸준히 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그 친구가 머리가 좋고, 혹은 고등학교 과정을 예습하고 있었겠거니 어림짐작했었는데 사실 저의 하루는 단 한 번도 그 친구의 하루보다 성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매일 꾸준히 진보하는 사람은 그 품성 역시 올곧습니다. 그 친구는 전교회장직도 맡았으며, 교우관계도 원만했고 선생님들과도 곧잘 지냈습니다. 제가 동급생 중 유일하게 존경했던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급우들도 그 친구를 잘 따랐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친구가 바로 仁者의 정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仁者라고 하면 하루 하루를 성실히 진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仁者和 유사한 사람들은 다음의 특징들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타인을 미워하지 않으며, 둘째로 타인을 이끌어 공동 목표를 성취해내며, 셋째로 매일 꾸준히 노력해 성실히 진보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사속에서도 이러한 인물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던 중 제가 생각한 仁者의 특징을 모두 지닌 역사적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사대부 출신으로 충효와 문학에 있어서 뛰어날 뿐 아니라 시재에도 특출했고, 정의롭고 용감하며 인자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한 정의감은 후에 상관과 격돌하여 모함을 받기도 했고, 용감성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에서 매번 선두 배에 탑승해 장졸들을 지휘함으로써 예하병사들의 사기를 돋궈 여러 전투에서 전승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순신의 인자한 성품은 홀로 계신 노모를 극진히 받들 수 있었고, 아버지를 일찍 여윈 조카들을 친아들같이 사랑해주었습니다. 그는 28세가 되던 해에 무인 선발시험에 응시했으나 불운하게 시험장에서 달리던 말이 고꾸라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 왼발을 다치고 실격하였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순신 장군은 굴복하지 않고 그 뒤에도 계속 무예를 닦아 4년 뒤에 재시에 합격에 관직에 등용되었습니다. 이후 임진왜란 당시 적은 수의 배로도 겁먹지 않고 장병들을 격려 시키며 결집해 압도적인 수의 왜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보면 다른 이를 사랑하기도 하고, 본인을 내려놓기도 하고, 용감하며, 다른 이를 쉽게 미워하지 않았으며, 타인을 이끌어 공동 목표를 성취할 뿐만 아니라, 매일 자신을 갈고 닦아 나갔습니다. 이는 공자의 관점에서나 제가 생각한 관점에서나 어떻게 보아도 仁者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듯이, 우리 현대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으로서 성균 논어라는 과목을 필수로 배우지만, 저는 이 과목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과거 위대했던 선생들의 가르침을 공부할 기회를 얻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논어를 공부함을 통해 이공계 과목만을 공부하던 때와는 다르게 삶의 태도나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과거 제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발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지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 논어의 배움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사회에 만연한 문제점 중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혐오 문제입니다. 일명 갈라치기로 인한 파벌 싸움입니다. 일례로 육식 / 채식, 이성애 / 양성애, 동성애 등의 민감한 주제들로 싸우는 현상을 일컫는데, 보통의 경우에 비주류의 집단이 단체로 주류 집단을 찾아가 본인들의 사상을 존중해달라고 폭력적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자신과 사상이 맞지 않는 경우엔 강요하며 폭언을 일삼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仁한 마음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공자의 가르침이 닿지 않아서 기인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의 동방예의지국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논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 仁者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을 갈고 닦아야 하며, 더 나은 세상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3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월요일/ 오전 9시
학과: 유학·동양학과 / 학번: 2022311842	성 명	한글: 양신이 / 한자: 梁新以
담당교수: 유은주		

주제: 인(仁) - “인자의 품격과 자격”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제목: ‘남’이 생각한 옳음에서 ‘내’가 생각한 옳음으로

‘향원’ 그는 누구인가?

“鄉愿 德之賊也” 『논어』 : 향원은 덕을 해치는 사람이다.

공자는 향원이란 인물에 대해서 덕을 해치는 자라고 말한다. 향원이란 인물이 누구이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 향원은 어느 집단에 가든, 어느 사람과 만나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나는 왜 공자가 향원이 덕을 해치는 자라 했는지 처음에는 의문스러웠다.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니, 나는 될 수만 있다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자는 왜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향원이라는 인물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 바로 고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만, 향원과 같은 사람은 모두에게 좋은 평을 듣기 위해 자신의 원칙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의로운 집단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집단도 있는데 모든 집단의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을 받는 향원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며, 자신의 주관에 없는 사람인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때까지 나의 인생은 마치 향원과도 같았다. 나의 인생은 ‘남’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내가 공부를 했던 이유-소인(小人)과 같은 인생을 살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의 생활은 마치 쳇바퀴와 같았다. 학교 - 학원 - 독서실 - 집, 이 네 장소를 왔다갔다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나의 모든 일과였다. 그 당시 나는 ‘내신 따는 기계’였다. 새벽 3시까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공부하다가 4시간을 자고 아침에 학교에 가서 또 공부를 했다. 한국사 내신 1등급을 맞기 위해서 한국사 교과서를 12번 읽고 통째로 외웠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독하게 공부했던 것일까? 그 답은 바로 내가 아닌 ‘남’ 한테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별로 눈에 띄지 않은 아이였다. 소심했으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어려워했다. 한 학년이 끝날 때까지 내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다. 특출난 외모를 가지지도 않았고, 체육시간에는 맨날 달리기 풀등을 할 정도로 운동신경은 정말 없었다. 이렇듯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내가 그나마 남들보다 잘했던 것이 바로 ‘공부’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 1등을 하면 선생님과 친구들은 나를 기억해줬다. 반 1등을 하면서부터 내 이름을 못 외우는 친구들도 없어졌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성적에 대한 나의 집착은 더 심해졌다. 내가 진학한 고등학교에는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해 있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으며, 우리에게 성적을 한 등급이라도 올릴 것을 매일같이 강조하셨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상,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는 성적을 잘 받는 것이라고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런 선생님들의 말이 옳다고 믿고, 계속해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지상주의 속에서 늘 전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던 나는 어디를 가든 대우를 받았다.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00아~ 공부는 잘 되어가?”라며 나를 늘 챙겨 주셨고 친구들은 좋은 성적을 받는 나를 부러워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는 나를 보면서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다. 그래서 나는 더욱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 성적은 나에게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수단이었다.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논어』 : 군자는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고등학교 1학년때까지의 나의 공부와 인생은 모두 ‘남’에게 달려있었다. 모든 이유를 남에게서 찾는 소인(小人)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인생에 그리 불만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였다.

고등학교 2학년, 작지만 큰 결심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망쳤다. 첫날 본 과목은 수학이었다. 시험장에 앉아있는데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심장은 쿵쿵댔다.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머리속이 새하얘졌다. 맨 마지막 장 문제들은 손도 대지 못하고 찍었다. 완전히 시험을 망친 것이다. 중간고사 시험 이후, 주변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선생님들은 더 이상 나를 예전처럼 챙겨 주시지 않았고, 몇몇 친구들은 떨어진 성적을 보고 “재 이번에 무슨 일 있어?”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나에게 실망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의 가치를 보여주던 성적이 떨어졌으니, 내 존재가치가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너무나도 우울했고, 고통스러웠다. 내가 왜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생각해보았다. 그 고민에서 나는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남들의 평가와 가치관에 내 인생을 맡겼고, 남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서 했기 때문이었다. 지금과 같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나의 가치는 없어질 것이고,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겪을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 봄, 나는 아주 작지만 큰 결심을 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자.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자.’

아동인권보호 동아리를 만든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해보자, 다짐은 했지만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난 18년동안 남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갔는데 어찌 쉽게 옳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학원과 독서실에 갇혀 있던 18살이 시비(是非)를 판단하기에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했다. 한 가지의 일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이 얹혀 있었다. 대부분의 일에서 나는 옳음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옳음을 확신할 수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0년은 코로나19의 시대였다. 그리고 그 당시 뜨거웠던 주제가 바로 ‘아동학대’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기사들이 나왔다. 우리나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확산된 2020년 2월에서 3월사이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지난해 동일 기간과 비교했을 때 13.8%나 증가했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옳음이 보였다. ‘폭력은 옳지 않다, 특히 아동학대는 더욱 옳지 않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라는 옳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확신한 옳음을 실천하고자 결심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소외된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힘을 보탬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고등학생의 신분에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아동인권보호 자율동아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율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장과 차장을 포함한 최소 5명의 인원이 필요했다. 그 당시 우리 학년의 친구들은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정규동아리 활동은 생기부에 몇 백 글자를 넣을 수 있었지만, 자율동아리는 달랑 ‘○○동아리에서 ○○활동을 함’이라는 문구 한 줄만

적히기 때문이었다. 한 마디로, 입시 측면에서 자율동아리는 가성비가 좋지 않았다. 심지어 대입과목이나 특정 직업 하고도 별 관련이 없고, 겉보기에 재미도 없어 보이는 아동인권보호 동아리라니?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설득하고 설득했다. 왜 아동인권의 보호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비록 생기부에 들어가는 것은 한 줄이지만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도 설득했다. 그 결과, 평소에 친했던 친구들을 겨우겨우 모아서 동아리 최소인원 5명으로 아동인권보호 동아리를 만들 수 있었다.

남들이 생각하는 옳음에서 ‘내’가 생각하는 옳음으로

아동인권 동아리에서는 우리는 많은 활동들을 했다. 아동 스스로도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아동인권이란 무엇인지 공부하고 동네 유치원에 나가서 인권 수업을 진행했다. 동아리원들끼리 모여서 아동인권보호 포스터를 만들고 교내 곳곳에 붙였다. 학교 근처의 지하철역에 방과후에 나가서 아동인권보호에 더욱 관심을 쏟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또 아동인권보호의 의미가 담긴 배지를 직접 만들어서, 한강 플리마켓에서 판매했다. 배지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아동보호기구에 전액 기부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부원들과 논의해서 진행시켰다.

이 모든 것을 1년동안 내신준비, 수능준비를 하면서 병행하다 보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생기부에는 ‘자율동아리: 아동인권보호동아리 활동을 함.’라는 한 줄로 적혀 있다. 인원도 얼마 없는 자율동아리 활동 하나에 열의를 다하는 나를 보고 주변 선생님과 친구들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았다. 다들 적당히 대충 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만족스럽고 기뻐했다.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자율동아리 활동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들도 꽤 계셨다. 이를 보며 내가 생각하는 옳음의 실천을 통해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대입(大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율동아리 활동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간고사 시험을 망쳤을 때와 달리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느꼈던 이유는 행동의 이유가 ‘남’이 아닌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자율동아리 활동은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내’ 스스로 실천했던 일이었다. 이를 통해서 나의 주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 활동은 기계적이었던 나의 학교 공부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주었다. 이제 공부는 나에게 단순히 남들의 인정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공부는 나의 생각과 주관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나침반이었고, 더욱 다양한 배움이 존재하는 대학교로 나아가는 ‘발돋움’이었다.

오직 인자만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남들에게 나의 인생을 말할 때 느꼈던 불행,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느꼈던 행복은 모두 나에게 큰 의미를 준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한 내가 생각하는 인자(仁者)의 품격과 자격은 ‘옳음’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자이다.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논어』: 오직 인자만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오직 인(仁)한 자만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이 말을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악을,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선악의 판단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할 수 있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에 비해서, 논어를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겪은 지금의 나는 인자에 대해서 비교적 더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의 품격과 자격에 대해서 완전히 깨우쳤거나, 내가 인자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아직도 세상에는 내가 옳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일보다 없는 일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옳음을 확신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고자 발걸음을 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는 것에서 큰 기쁨이 있다. 공자가 연로한 나이에 도인의 실현을 위해 계속된 노력을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인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평생의 숙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나는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학생으로써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너무 뻔한 대답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공부는 나에게 그저 학점을 위한 공부가 아니다. 배움을 통해 나만의 옳음을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공부이다.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나만의 옳음을 확립하고 그것을 실천해나가는, 진정한 인자(仁者)가 되기를 소망한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3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목요일 / 1시
--------------	------------	-----------------

경영학과 학번:2022310341		성 명	한글: 이가현	한자: 李佳炫
담당교수: 김종석	검인			

제목: 비난으로 사랑하기- 비난을 인 인(仁)

仁간이 되고 싶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 스스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지” 라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린 아이가 꿈꾸는 멋지고 상상력 넘치는 꿈이 될 수도 있고, 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되어 원하는 대학교와 그 학교의 과에 소속된 대학생이 되길 바라는 꿈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며 자신이 목표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양한 모습들로 다양한 꿈들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저 또한 꿈이 수도 없이 바뀌어 왔습니다. 6살 때, 외동이었던 저는 언니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초등학교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아서 만화가가 꿈이었고, 중학교 때는 꿈을 잃고 많은 고민에 잠겨 있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는 경영학과 입학의 꿈꿔오며 지금 현재 그 목표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에 오는 꿈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저는 조금은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꿈을 위해서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여유에서 점점 밀려오는 것은, 나의 ‘인생’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요. 지금까지 저의 꿈을 되돌아보면, 사회적 역할 자체에 대한 희망 사항은 있었지만, “사회적 역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까?” 라는 고민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에 대한 고민은 대학교 2학년인 저의 또래들이 정말 많이 겪을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 무엇인가에 대해, 인(仁)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삶, 사랑, 사람

저는 우선적으로, 내가 멋지고 내 스스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흰색 도화지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마음을 갖추어야

그에 파생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색깔이 감정과 태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있어서 흰색 도화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인(仁)의 기본인 ‘사랑’ 이라고 생각합니다. 인(仁)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仁)을 얘기할 때 ‘사랑’ 을 떠올립니다. 이처럼 사랑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덕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부지런하게 생활해야 하는 것,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아야 하는 것,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먹어야 하는 것 등 일상생활에서 알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할 행동들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마음인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표현하고 가깝게 하기 위한 “나만의 작은 원칙을 만들기” 로 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모두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입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고, 저의 선택을 존중하며 옆에서 제가 하는 노력들을 지켜봐 주십니다. 저는 두 분이 저를 모두 사랑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두 분의 사랑을 제가 받아들이기까지는 큰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무엇을 하든 항상 칭찬으로 저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도 물론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를 소중히 하시며 저를 아껴 주셨습니다. 항상 저에게 행동으로, 좋은 말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께서는, 무뚝뚝하시고 칭찬을 낮 간지러워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좋은 말들을 해주시기보다는 농담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시험 잘 본 거 축하한다고 하실 때면 아버지는 전교 1등을 못했다고 장난스레 놀리시곤 했습니다. 항상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옆에서 장난을 치시며 거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정말 나를 아끼시는 게 맞나 헛갈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은 그것이 아니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고 대변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지금은 점점 성장하며 아버지의 표현에도 익숙해지고, 그 속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 사랑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크게 아팠을 때는 저를 엄청 챙겨 주시기도 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서 자취를 하고 있는 저에게 매일 같이 뭐하냐 전화를 하시곤 합니다. 물론 지금도 애정표현을 하진 않지만, 시시콜콜한 농담을 하더라도 매일같이 저를 궁금해하시는 아버지에 사랑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 방식을 통해 제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많이 표현하기” 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상대도 그 사랑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좋은 감정이 피어나는 것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아버지의 방대한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듭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나 다른 타인이 벌인 것이었다면, 저는 더 그의 사랑을 깊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법을 잘 익히는 것이, 사랑을 실천해 어진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仁의 모양새를 잘 생각해 인은 사람 인(人)과 두 이(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 즉 사람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한자이며, 우리는 이러한 인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삶, 사랑, 사람, 사랑, 삶, 사람...’ 연이어서 말해보면 비슷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사랑은 삶이고, 삶은 사람이고, 사람은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의 목표를 사람으로서 사랑을 마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세워보면 어떨까요?

멋지게 비난하라

이렇게 흰색 도화지를 준비하고 예쁜 색깔들을 칠하다 보면, 어울리지 않는 색을 실수로 칠할 때도 생깁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랑을 나누어 주다 보면, 알맞지 않은 사람에게, 혹은 상황에서 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적인 소양을 쌓고 인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공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나, 잘못된 길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되지 않은 억지의 사랑을 주는 것, 즉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동들은 좋은 삶의 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만약 정말로 내가 아끼는 가족이나 애인을 공정한 판단 없이 따르게 된다면, 타인의 삶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마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의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도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멋지고 능력이 좋은, 내 인생의 직업 커리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누구나 자기 자신 곁에 이 사람을 두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 좋고 멋진 사람이, 사실은 성품은 뛰어나지 않고 모든 관계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박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옳지 못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도 언젠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으니 관계를 유지하라고 할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주고받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자신에게 오는 이익을 유무로, 즉 사물(능력이나 그 사람이 지닌 것)을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소인의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삶의 관계를 유지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환경에 놓일 경우에는, 자기 자신마저 겉모습에만 집중하게 되며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하는 기준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세워야 합니다. 즉 사랑을 통해 관계를 키우고, 그 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옳은 삶의 방향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비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子曰: "剛毅木訥, 近仁."

(자왈: "강의목눌, 근인.")

“강직하고 굳세며 질박하면서 과묵한 것이 어쉴에 가깝다.” 공자가 말하였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며 강인하며 묵중한 것, 저는 이 태도가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문제 속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쓸데없는, 가치가 없는 말들은 하지 않으며 ‘공정한 비난’을 통해 관계를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무자비한 비난과 증오는 역사 속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무수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세기 유럽 사회에서 시작된 “마녀사냥”과 같은 현상도 인간들의 끝없는 증오와 혐오로 이루어진 비난을 대표하는 현상입니다.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논리가 없는 비난을 하는 집단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논리적이고 공정하게 비난을 하는 현상은 거의 드물고, 사람들은 개인적인 부정적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 연예인들을 도구로 삼아 무자비 하게 악플을 남깁니다. 그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난은, 단순히 상대방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 태도, 성격 등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義之與比(의지여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의로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는 의롭지 못한 사람은 멀리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비난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좋게 이어 나갈 목표를 세우려고 합니다.

찢어지지 않는 무적의 작품

여기서 다시 한번 나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위의 목표들이 내가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게 되는 것들이라면, 난 지금 어느정도 잘해오고 있을까? 저는 다른 타인을 제 감정을 분출하기 위한 대상으로 잡거나, 무자비한 비난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마음 속으로 미워하거나, 질투를 한 경험은 많았습니다. 마음속에 적을 만들어 나 자신을 스스로 갇아먹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경쟁심리를 일깨워주어 열심히 살게 하는 동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도 내 인생에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은 많습니다. <맹자>에는 “인자무적” (仁者無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진 자에게는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두 없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 스스로는 적이라는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더욱 나의 감정을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에 투자할 수 있고 그로서 나는 나의 삶을 더욱 사랑 넘치고 의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흰 도화지에, 여러가지 의로움의 색깔들을 얹어 만드는 저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느낄 때까지, 내 스스로도 잘 살아간다고 느낄 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3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목요일 11시~13시
--------------	------------	--------------------

학과 : 화학과 / 식품생명공학과 학번: 2020315760	성명	한글: 김세람 한자: 金世嫻
담당교수: 임종수		

주제: 인(仁) - “인자의 품격과 자격”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제목: 과연 나는 인간(仁間)인가?

‘당신은 인간(仁間)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했을 때 ‘그렇지 않다’ 쪽에 기울어진다. 즐겨 읽는 시인 故기형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에는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라는 구절이 있다. 지난날의 나를 돌이켜봤을 때, ‘호선오악(好善惡惡)’에 반하는 시 속 화자처럼 나의 욕심만을 위하여 타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일삼았던 날들이 빈번하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이라는 기간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 고민할 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탐구하곤 했었다. 자아(自我)가 형성되는 이 시기 동안 외적으로 내적으로 주변인들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말 한마디에 쉽사리 흔들렸었다. 따라서 친구들이나 대중매체 속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겉모습과 배경을 현재 나와 비교하며 질투하고, 동시에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현재 나의 모습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했다.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불만과 타인에 대한 시기로 가득했던 이유는 인간(仁間)으로서의 첫 관문인 자기애(自己愛)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를 깨달은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대입을 준비하던 시기이다. 대입이란 관문을 통과하는 데에 있어 나에게 12년이란 시간은 부족했고, 남들보다 2년이란 시간을 더 투자하게 되었다. 그 시기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질투라는 감정에 자아(自我)를 잃어버리고 수없이 많은 공장을 세웠다. 당시에는 ‘무한 경쟁 사회’라는 대입 준비생들의 현실을 대표하는 단어를 곱씹으며 인(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대해 무수히 합리화하기 바빴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 속 나는 진정 행복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절대 아니다.’가 답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순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을 추구하는 인(仁)이란 비로소 자신에 대한 애(愛)를 밑거름으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구나 결점은 있고 완벽할 수 없다. 나의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이 정확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했을 때 남들보다 효율이 높아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절대적인 단점은 없으며, 단점이나 콤플렉스(complex)를 잘 관리했을 때 한 사람의 결이나 질감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해당 사실을 스스로 알았을 때, 비록 부족한 자신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성숙한 자아를 가진 것이며, 그 시점부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생길 수 있어 진정한 의(義)로움을 가진 인간(仁間)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仁)을 실천하는 형태는 무엇이 있을까? 그 형태 중 하나는 인류의 중요 덕목이자 부모에 대한 경애의 감정인 효(孝)라고 생각한다. 최근 뉴스나 기사를 보면 순간의 감정이나 순간의 이익에 사로잡혀 반인륜적 범죄인 존속 살해의 빈도수가 늘어감을 체감할 수 있다. 해당 범죄는 형

법상 250조 2항으로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2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해당 형량은 다른 동일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 더욱 무겁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판도 더 거세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해당 범죄는 인(仁)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은 과도하게 경쟁을 부추기고 개인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요즘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 사이에 흔히 쓰이는 말 중 ‘마이웨이’가 답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무관심을 추구하는 현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다. 특히, 대학교 조별 과제에서 ‘마이웨이’를 추구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대학교에 막 입학해 새로운 학우들을 만남에 있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도 그런 유형의 사람이 포함된 조별 과제를 했던 경험이다. 그런 유형의 사람은 타인과 소통하며 서로의 상황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 자체를 시도하지 않고 그저 자신 위주로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陣頭指揮)하기를 원했다. 이처럼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지도 않은 채 본인의 상황만 공감받으려는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의식이 강해진 사회적 분위기가 현재 시대에 인(仁)의 형태인 효(孝)의 중요성이 희미해지는 이유이다. 몇 년 전 인터넷이나 여러 방송에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글귀가 많이 언급됐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익숙하고 소중한 존재는 언제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부모(父母)이기에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항상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효에 대한 중요성은 특히나 동양에서 과거부터 언급되었는데, 사자성어 중 풍수지탄(風樹之歎)과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를 통해 효도(孝道)에도 때가 있으므로 언제나 자식으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전 작품 중에서도 효(孝)를 주제로 하는 소설과 시조를 많이 볼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토대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가질 때 비로소 인간(仁間)이 되는 길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효(孝)를 실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효(孝)라는 말이 주는 무언의 중압감 때문에 화려하고 대단한 일들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오해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천재 과학자라 불리는 아인슈타인의 명언 중 ‘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이라는 말처럼 어쩌면 너무 사소해서 더 하기 힘들었던 일인 매일 안부 전화드리기 혹은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효(孝)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효(孝)를 충실히 실천하는 자식(子息)이 있기 이전에 그런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부부(夫婦)의 관계 속에서도 인(仁)을 찾아볼 수 있다. 부부란 연을 맺어 평생을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며 가정 화목의 근간이 되는 관계를 말한다. 모든 사물에는 무게중심이 존재하고, 무게중심이 있어 사물의 균형이 유지된다. 시소를 예로 들자면, 시소의 평형 유지를 위해 시소 중심에 받침대가 필요하다. 이처럼 사람의 관계에도 평형 유지를 위한 무게중심이 필요하다. 가족 관계에서 그 중심은 부부(夫婦)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의 부부(夫婦)가 가족의 무게중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 부부(夫婦) 사이에는 부부지정(夫婦之情) 혹은 금슬지락(琴瑟之樂)이라 불리는 돈독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 서로를 배려하고 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식(子息)도 이를 본보기 삼아 자라서 제대로 된 효(孝)를 실천할 수 있다. 또한, 자식(子息)의 어진 인성을 형성하는 데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근간이 된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TV 프로그램인 ‘금쪽같은 내 새끼’를 즐겨보는데, 해당 프로그램에 상담을 신청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평소 부부(夫婦) 사이의 잦은 언쟁이나 한 쪽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른 한쪽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 이를 보면 부모(父母)가 자식(子息)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仁)을 지닌 두 남녀가 좋은 인연을 맺어 부부(夫婦)로서 금슬(琴瑟) 좋게 살아가는 것이 후대가 인간(仁間)이 되는 데에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仁間)이 되기 위한 마지막 키워드(keyword)는 ‘우리’이다. 위에서 계속 언급했다시피 현대 사회는 ‘우리’가 아닌 ‘나’와 ‘너’의 개념만이 존재하는 분위기이다. 이는 수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KOSIS(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가구의 27.9%를 차지하는 539.8만 명이었던 1인 가구의 수는 5년 만인 2021년에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는 716.6만 명으로 비율로는 6% 정도가 인구수로는 약 180만 명 정도가 증가했다.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족 형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게 맞지만, 그 정도를 넘어 인류에 대한 정(情)까지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은 낯설기만 하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한 가지 요인만을 꼽을 수 없이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경제 인플레이션(inflation) 현상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나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요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만 보아도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점차 줄어드는 출산율과 비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함도 해당 이유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부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있다.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비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비혼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한 학우가 그 이유로 물가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본인의 취미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자신 외 사람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아깝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 이처럼 문화가 계속 발전하며 다양한 취미활동이 늘어난 만큼 더 자신만의 시간을 중시하게 되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사자성어인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에서 볼 수 있듯 가족의 화합과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던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추세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결속시키는 행사가 있다.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올림픽과 월드컵이다. 이 기간에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으로 나라가 들썩일 정도이다. 이처럼 아무리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 사이 정(情)이 없는 삭막한 분위기라 해도 모든 이에게 ‘한민족’의 DNA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모두가 인간(仁間)에 한층 다가서기 위해 세상을 포괄하고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단어인 ‘우리’를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면 애(愛)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3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수요일 11시~12시 50분
영어영문학과 / 학번: 2022310744	성 명	한글: 고은진 한자: 高銀辰
담당교수: 정 병 섭		

주제: 대주제-인(仁) / 대표구절-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 세부주제-인자의 품격과 자격

제목: 누군가를 애증(愛憎)한다는 것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오직 어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또한 미워할 수 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감정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사랑과 미움은 함께 있기 힘든 극단의 감정이다. 그러나 이를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 바로 ‘애증(愛憎)’이다. 어떻게 어떠한 대상에 대해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떠오른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한 학년에 100명도 안 되었기에 누가 누군지 이름과 얼굴 썸은 모두 알 수 있었다. 나와 그 아이는 1학년 때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역시 좁은 복도에서 오다 가다 만난 적 있는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에 대한 험담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나 혼자 그 아이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그 친구와 같은 반이 되었다. 그리고 사소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시작으로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으로 ‘증(憎)’에 가까웠던 감정은 어느새 ‘애(愛)’가 되어 우리는 모든 걸 공유하고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친구가 되었다. 1학년 때의 감정은 모두 잊고 그 아이의 장점만 보였다. 간혹가다 느끼는 안 좋은 습관이나 언행 썸은 눈감았다. 말해서 고치는 것이 그 친구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행동이란 걸 알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학교에선 내내 함께 있고, 학교가 끝나면 휴대폰을 붙들고 항상 연락을 주고받았다. 결국 3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그렇기에 더욱 나와 이렇게 잘 통하는 친구는 없을 것이고 계속 이 연이 지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그 바람대로 3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1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면서 우리 둘은 역시 운명이라고 방방 뛰며 좋아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생활은 내 생각과는 달랐다. 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며 중압감을 많이 느꼈다. 그건 물론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중학교와는 달리 내 성적, 등수가 모두 공개되고 이제부터 정말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부에 몰두했다. 그러면서도 한 학년에

100명도 되지 않았던 중학교와는 달리 한 학년에 300명이 넘는 고등학교는 내가 적응하기에 너무 버거웠다. 그때의 나는 공부와 친구, 그리고 가족까지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기고 싶다는 생각에 아등바등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8시에 등교해서 23시에 집에 갈 때까지 새로운 친구들과 계속 함께 있으면서 어울리는 것은 재밌지만 그만큼 감정적, 체력적으로 소모가 심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작은 다툼이 시작됐다. 시작은 서운함이었다. 어디서부터, 그리고 누구부터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바쁜 고등학교 생활에서 전처럼 1순위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서운함을 느꼈고 이를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지며 우리는 속에 각자만의 응어리를 쌓았다. 새로운 친구들과 온종일 함께하며 어려운 수업을 듣고 야간자율학습까지 하고 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다시 공부를 하러 가기 바빴다. 한 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감정 소비가 매우 클 것을 알았기에 ‘이번 수행평가 준비만 끝나고 얘기해봐야지, 이번 중간고사만 끝나면 얘기해 봐야지’ 하며 조금씩 미루기 시작했다.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 없는 우리 관계는 사실 크고 작은 문제가 가득했고, 금방이라도 터져서 싸우더라도 이상하지 않았다. 서로 상해있는 감정은 알지만 모른 척 지내기를 몇 달. 고민 끝에 건넨 한마디는 결국 싸움이 되었다. 쌓여있던 감정을 털어놓기 급급해 우리의 대화는 서로 서운한 걸 말하기에 바빴고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낼 필요도 없이 친구 관계는 끝이 났다.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 다뤘다. 시작도 작은 메시지 한 통이었던 우리는 끝날 때도 메시지로 끝이 났다.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할 용기가 안 나서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 긴 대화를 주고받았다. 결국 얼굴 보며 이야기하면 하지 않았을 말도 하며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바빴다. 공자는 "간과하지 말라. 작은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 큰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 정말 우리 둘의 관계를 묘사한 말이다.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를 드러내기 위해 과거에 네가 어땠는지에 대해 말하기 바빴고,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또 한 번 상처를 줬다. 그때 내가 그 아이에게 느낀 감정은 명백한 ‘증(憎)’이었다. 누군가를 이렇게 싫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아이를 미워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께서 내 가장 친했던 친구인 그 아이의 이름을 꺼내면 나는 그 아이 이름도 듣기 싫다며 거부했다. 싸우고 난 뒤로는 웃기게도 한 번도 같은 반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마저도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같은 반이 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반이 되고 싶어 기도하며 자던 날이 수두룩했는데, 한 번의 다툼으로 같은 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잠들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모순적인 사람이 어땠나 싶은데 그 당시 나의 마음은 그랬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우습게도 과거의 그 미운 마음은 어디 갔는지, 심지어 왜 싸웠는지 그 자세한 이유도 기억이 안 난다. 오랜 시간 친구였던 탓에 지나가듯 그 아이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이상하다. 그 아이를 향한 나의 감정은 첫인상은 증(憎),

그다음엔 애(愛), 그리고 다시 증(憎)이었다가 지금은 애증(愛憎)의 감정이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싫어할 순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나도 사실 그 아이를 애증하고 있었다.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서로 양보하고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우리 둘의 관계는 정말 웃기다. 서로의 상황을 양보하고 배려하여 서운한 감정을 묵혀두고만 있었기에 이와 관련된 대화는 의도적으로 피했고, 결국 의미 없는 배려의 결과는 어긋난 관계였다. 인간관계라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다. 불과 1년 만에 만나면 서로 피하는 사이가 된 게, 그리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애매한 감정만 남아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그렇기에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라는 구절을 보자마자 우습게도 그 아이가 떠올랐다. 어렸던 그때 그 아이를 좋아했고 함께 하며 그 아이의 단점이 보였지만 모른 척했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감정은 증오가 되어 단점만 보며 싫어했다. 어질지 못했던 과거의 나는 '내 친구 아니면 남'이라는 기준도 명백하지 않은 분류 속에서 그 아이를 정의하고 또다시 정의하며 지냈던 것이다. 어떻게 사람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완전히 구별하여 볼 수 있겠는가. 완전히 선한 사람은 어디 있고, 완전히 악한 사람은 어디 있겠는가.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마다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선한 마음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공자는 "스스로를 돌아보아 허물이 없으면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성찰적 존재이다. 내가 과거의 나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내가 모순적이고 안일한 사람이었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 아이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정의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터넷 속에서 너무 쉽게 사람을 미워하고 또 좋아한다. 쉽게 좋아요, 싫어요 버튼을 누르며 본인의 이분화된 감정을 표출한다. 한 연예인에게 어떤 기사와 댓글은 칭찬과 찬사, 사랑이 가득하지만, 또 다른 기사는 비난과 야유, 증오로 가득차 있기도 하다. 쉽게 기사, 영상 등을 보며 사람을 판단하고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느낀 극단의 감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는 것. 한 가지 의견을 담은 기사 등을 보고 선불리 판단하는 것. 이는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는 어질지 못한 행위이다. 사람은 한 순간으로 판별될 수 없으며 기준이 없는 판별은 무의미하다. 인간을 이분화하여 보며 내 편, 남의 편을 정한다면 한 쪽에는 무수한 사랑을 주고 한쪽에는 무분별한 미움을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 '남의 가족'이라는 구분 하에 가족들과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받는다. 이는 교우관계로 확장되고, 더 커져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크고 작은 무리 속에서 '내 사람'과 '남'을 구분하고 태도를 달리한다. 누구든 동등하게 사랑하고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준이다. 근거 없는 애(愛), 증(憎)처럼 무서운 것도 없다. '인'이라는 기준을 세워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항상 상기시키며, 내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기준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처럼 우선 나를 되돌봐야 한다. 자아 성찰을 통해 나를 먼저 가꾸고 사사로운 감정 없이, 편견 없이 남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자의 품격과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논어는 인을 실천하고 올바른 기준을 세우기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논어를 통해 인자의 품격과 자격을 갖추고, 옳은 기준을 통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3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화요일/3:00~4:50
전공: 화학/고분자공학부 학번: 2019310843	성 명	한글: 김원효 한자: 金原孝
담당교수: 김병목		

주제: 인(仁) - “인자의 품격과 자격”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제목: 자신에 대한 성찰

논어 구절 중 기억에 남는 인(仁)에 관한 구절이 있다.

자공이 “가령 백성에게 은혜를 널리 베풀어 대중을 구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仁)하다고 이를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께서 “어찌 인(仁)한 정도 이겠느냐? 필시 성인의 경지일 것이다. 요순도 이 문제를 고심했었다. 무릇 인자(仁者)는 자기가 서기를 바라듯 남을 서게 하고, 자기가 다다르기를 바라듯 다른 사람을 다다르게 한다.” 라고 하셨다. 나는 이 구절을 보고 내가 고등학생 때의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났다. 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유난히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다. 또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 시험 공부를 할 때 매번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려고 했었고, 그로 인해 나의 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항상 안고 지냈다.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두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한 명이 나에게 필기를 보여달라고 했다. 오래전의 일이라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필기의 내용이 시험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필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평소에 나는 그 친구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늘 미안한 마음과 고마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어 오히려 반가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 친구에게 필기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더니 기어코 그 친구에게 필기를 보여준 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내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준 것이며 심지어 내가 도움을 준 대상이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임에도 불안해 하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에 나는 자기혐오에 빠졌다. 나의 등수가 밀릴 수도 있다는 불안과 동시에 자기혐오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시험기간에 쓸 데 없는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은 배가 되어 나의 정신과 육체를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 놓았다. 나의 고등학교 시절을 볼 때 나는 인(仁)과는 한참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나는 ‘본인에게 몇몇한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 지금와서 인(仁)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보니 나 자신에게 몇몇한 사람이 된다면 나는

인(仁)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이후로 나는 몇몇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실천을 하고 살았다. 내가 아는 문제를 친구가 풀지 못하고 있을때 알려주기도 했고, 타인을 위하여 이런저런 봉사도 하였다. 하지만 매번 나를 희생해야 할 순간에는 아직도 머뭇거리게 된다. 내가 시간이 많을 때, 내가 알려주는 문제가 내가 받을 성적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상황일때 나는 선뜻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시간이 없을 때, 내가 문제를 알려주는 행위가 내가 받을 성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노약자분들에게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리를 양보해 드린다. 아무래도 자리를 양보해 드린다고 내가 크게 잃는 것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는 동물인 것일까? 나는 고등학교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은 성격이다. 아무래도 예전같이 걱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걱정할 상황이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나도 나의 저런 이기적인 모습이 싫고 최소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받은 만큼의 도움을 되돌려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한 더 나아가 나 자신이 훗날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고 먼저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번 학기 중간고사를 쳤다. 걱정이 되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다. 시험기간이 아닐 때는 하지도 않았던 건강 걱정을 시험 기간 때 뜬금 없이 생각이 나서 하였다. 지금은 지극히 정상이지만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럼 어찌지? 하는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하룻밤을 새고 그 다음날은 잠을 못자면 어찌지 라는 생각에 잠이 안오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내일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고 어제 밤을 새워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다. 잠을 잘려고 일찍 눕지만 걱정에 잠이 들지 않는다. 매번 시험마다 너무 진을 빼는 것 같다. 처음엔 성적을 잘 맞고싶어 너무 마음이 앞서다가 매번 마지막에 이렇게 탈이 나는 것 같다. 한 번 잠이 들지 않는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버리면 이후에 마음을 고쳐먹어도 시험이 끝날 때 까지 잠이 잘 들지 않는다. 오늘 나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일까 나는 하고 생각을 해본다. 결국 다 성적을 잘 맞아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한다는 나의 강박과 나의 분수에 맞지 않는 나의 지나친 사적 욕심 때문일까? 인자는 사심이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사심 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다. 현재 나의 신분은 학생이지만 나는 배움에 대한 욕구는 없고 온통 학점이라는 숫자를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잘못된 것일까? 요즘 세상은 SNS가 발달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과 매우 빠르게 소통을 하게되고 사람들의 잘살고 행복한 모습만 봐서 나의 행복의 기준이 많이 높아진 것이 아닐까? 강의 교안에서 인에 관한 구절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눈에 띄었다. 공자께서 “자기의 사욕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인으로 귀결 될 것이다. 인을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남에게 달려있는 것이겠는가?”라고 하셨다. 나의 상황에서 내

사욕을 이겨내고 인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본다.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 나는 학문을 연마하는 데에는 흥미가 없고 역량이 부족한게 확실해보인다. 나는 취업을 하기 위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에는 나의 역량보다 나의 기준이 많이 높아져있는 것을 알고 내 몸과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조정 하려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 분명 인하다고 말 하지는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나의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글로 써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 인자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다. 내 인생에서 과연 내 즐거움과 나의 욕심과 나의 사욕을 포기해 본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될 까도 생각을 해본다. 지금까지 내가 부모님께 하는 효도는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여 용돈을 넉넉히 챙겨 드리고, 부모님의 어깨를 피고 다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학교에 돌아와서 시험기간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와서 보니 효도가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 논어 구절에 이런 말이 있다. “효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맹무백이 효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 근심하신다.”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며 인에 가까워 지는 행위가 아닐까?

“일상생활에 있어 한 순간이라도 부모를 잊지 않은 후에야 효도라고 할 수 있다. 몸가짐이 성실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에 법도가 없으면 놀면서 세월을 보내는 자는 모두 부모를 잊은 자이다.”라는 구절을 보니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얘기 인 것 같고 나는 효를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 가게를 하시느라 평소에 건강 검진도 제대로 못 받으셨다가 최근에 검진을 받고 큰 병에 걸리셨음을 알게 되셨다. 어머니께서 그런 큰 병을 앓고 계신 줄도 모르고 군대에 다녀 온 뒤에 학교 앞에 자취를 하면서 신나게 놀며 1년을 보냈다. 휴학이 다 끝나갈 무렵 복학을 할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참 부모도 잊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스럽다. 어머니께서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와중에도 나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항암에 좋은 과일주스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좋은 한약에 고기들을 많이 보내주신다. 어머니께선 입맛이 없어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글을 쓰면서 내가 참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불효자식 인 것 같아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니, 만약 이렇게 세월만 보내다 보면 끝내 부모를 모실 날이 없을 것이다.”라는 구절과 나의 상황이 같아지게 될까 봐 두렵다. 어머니께서 딱 한 가지 나에게 바랬던 것이 있다. 그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 와있는 강의 영상을 매일마다 3강의씩 시청해 달라는 것이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채널이었다. 내가 이 강의를 듣는다면

어머니는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한 강의 당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15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다. 운동을 가면서 들어도 되었고 밥 먹으면서 들어도 되었고 씻으면서 들어도 되었지만 강의 대신에 노래만 주구 장창 들었다. 그 강의가 재미가 없고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그것 가지고 어머니와 많이 다투기도 했고, 요즘은 그냥 “네 듣고 있어요!”하며 대충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 때는 어머니 생각이 무척 나고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어 지니 그런 강의도 찾아 듣게 된다. 힘들어서 강의를 몇 개 찾아서 들었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 많이 좋아하신다. 앞으로 시험이 끝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더라도 어머니의 바램이라면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강의를 들어서 “아버이가 살아 계실 때는 그 뜻을 살피고 아버이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행적을 살펴서, 3년동안 아버이의 도를 고치지 말아야 효라고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어릴 적부터 나와 누나를 힘들게 키우셨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는 이제 몸이 아프셔서 가게를 그만두셨고 아버지는 60이 넘은 연세에 아직까지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장사를 하러 가신다. 아버지는 저녁 6시에 반에 집에 들어오셔서 장사를 하신다고 점심을 제대로 드시지 못해 매번 저녁을 많이 드시고 소화 시킬 틈도 없이 내일을 위해 바로 주무신다. 이렇게 주6일 일을 하고 계신다. 아버지는 사생활이 거의 없다. 늘 가족을 위해 일을 하신다. 어릴적부터 아버지가 무서웠기도 했고 어머니와 자주 싸우셨던 기억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는 않다. 좋은 기억도 엄청나게 많았을테지만 안 좋은 기억들이 더 부풀려져 머리에 남아 있는 듯하다. 아무튼 이렇게 아버지를 무서워했고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건강하시고 강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도 나이가 많이 드셨고 평생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부모를 잊고 살았던 것 같다. 에세이를 적는 기회가 없었다면 아마 한참 후에나 깨달았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생신을 제대로 한 번 챙겨 드린 기억이 없다. 부모님의 생신은 음력으로 세기에 내가 신경을 못써 생신을 깜빡한 적도 많았다.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지내야 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호강을 했고 정말 모자라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온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부모를 오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식된 자는 정성과 힘을 다하면서도 미치지 못하지는 않는지 걱정해야한다.”라는 구절을 보았다. 앞으로 나의 평생을 바쳐도 어머니 아버지께 내가 받은 은혜를 다 못 갚을 것 같은데 부모님을 볼 수 있는 날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다. 부모님이 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려야 겠다고 다짐한다. 물질적으로 당장 헤드릴 수는 없겠지만 감사하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살아야겠다.

나는 누나가 한 명 있다. 나는 항상 누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집에 같이 지낼 때는 매번 말다툼을 하였다. 내가 20살이 된 이후에는 학교에서 생활을 하느라 누나와 얼굴을 자주 보진 않았지만 오래간만에 집으로 가면 여전히 말다툼이 생겼다. 두 달전 개강을 하기 전에 본가에 있을 때 누나와 한바탕 크게 싸우고 왔다. 나는 누나에게 나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으면서 어떻게 말과 행동을 그 따위로 밖에 못 하냐고 하면서 나잇값을 해라고 심한 말을 많이 했다. 그 이후로 누나는 나의 연락을 보지 않는다.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공자께서 답하셨다. “서경에 효에 대하여 말하였다.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여 정치를 베푼다.’라고 하였으니, 이 역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어찌 벼슬하는 것만이 정치를 하는 것이겠는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정치를 할 것은 아니지만 당장 형제 관계도 내가 어찌 할 수 없으면 미래에 취직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 갈 것이며 어떻게 큰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공부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형제관계도 원만히 잘 지내고 나아가 친구와의 관계도 소홀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태껏 나는 어차피 연락을 안하게 되면 멀어질 인연인데 인간 관계에 너무 얽매지지 말고 신경을 쓰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또한 내가 노력을 안 하더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자칫 친구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편한 관계라고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약속시간을 뒤늦게 미룬다 던 지 약속 시간에 늦는다 던 지 너무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연락을 주고 받는다 던 지 하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적어도 나의 잘못으로 떠나 보내는 소중한 인연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의 말과 행동을 더욱 더 잘 살펴야겠다.

마지막으로 에세이를 쓰면서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인이 멀리 있는가?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인이 이르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아직은 인과 거리가 멀지만 조금이라도 인과 가까워지기 위해 말과 행동에 유념하고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3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수요일 15:00-16:50
--------------	------------	------------------------

학부(과, 전공) 학번: 기계공학부, 2020311455	성명	한글: 오민서 한자: 吳珉瑞
담당교수: 임선영		

주제: 인(仁) - “인자의 품격과 자격”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제목: 나의 이정표, 나의 仁정표

子曰 “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 - <논어 이인>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

15살의 난 아버지를 미워했다.

‘밋다’는 단어를 보면 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학창 시절과 군대, 여러 아르바이트에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쌓아오면서 누군가를 밋다고 여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잠깐 미워했던 그 몇 개월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서인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가정형편이 편안치 않았고 어렸던 나와 내 가족들은 힘들어했다. 아마 아버지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괴로웠나 보다. 어렸던 나에게 아버지가 정말 미웠다. 매주 주말마다 여행을 다닐 때 운전대를 잡으시던 아버지, 퇴근 후 직장인의 황금시간에도 놀아주시던 아버지가 떠난 게 무책임해 보였고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리고 더할 줄은 몰랐던 가난이 어렸던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덩치를 키워갔다. 이런 이유에서였던 건지 아버지의 부재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려 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울지 않았다. 지나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했던 걸까, 지금 생각해보면 울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나의 중학교 2학년, 2015년 이후로 수많은 것들이 변했다. 나의 삶을 스스로 ‘평범하지 않은’ 삶으로 평가하며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꼬리를 물어갔다. 열심히 하던 공부도 잠시 손 놓았는데, 그렇다고 놀지도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던 것 같다. 무작정 놀기도 해보고, 온종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느껴보려고도 했다.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인자의 품격과 자격”을 주제로 한 에세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아버지의 부재와 아버지가 살아온 길이 이정표가 되어 지금의 나에게 오늘을 보다 인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심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에,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에서 비롯해 仁한 사람의 모습을 고민해보고 내가 그 모습에 도달하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고민해보고 싶어서이다. 이와 별개로, 인(仁)하지 못했고 아직도 인(仁)하지 못한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 시기를 깊이 반성하고 싶어서 그렇다.

나의 志于學, 仁者の 목표의식

“仁者の 자격과 품격”을 이야기하는 데 사람의 목표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목표를 따라 “평생”의 가치관이나 태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는 자신의 삶을 6단계(志于學, 而立, 不惑, 知天命, 耳順, 從心所欲不踰矩)로 이야기하며 그 첫 번째 단계를 삶의 목표로 세우는 “志于學”으로 삼았다.

공자는 15살에 삶의 목표로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 말한다. 어쩌다 보니 나의 15살도 삶의 목표를 세운 시기였다. 공자와 같이 자의에 의해 깊은 뜻에서 우러난 뚜렷한 뜻을 세우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 추상적이었어도 ‘행복한’ 미래를 가지기를 바랐다. 나에게 국한된 행복이 아닌 가족을 포함

한 내 주변이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 원대한 목표를 이를 수단을 공부로 삼았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의 이유가 ‘해야 해서’, ‘해 왔으니까’ 정도였고 성적의 오르내림을 껴어도 느끼는 바가 없었다. 그런데 목표를 품고 시작한 공부에는 간절함과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공부의 중심을 ‘나’에 두었다. 고등학교 내신의 어쩔 수 없는 경쟁 구조에서 남보다 잘하고자 하는 마음도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나’에 집중하려고 했다. 내가 어제와 비교해 무엇을 더 공부해 알게 되었고, 그 시간이 미래의 나와 내 주변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상상하며 공부했다.

공자는 志于學에서 學의 의미를 배움과 더불어 도덕적인 삶의 길을 따라 삶의 진리를 깨우치는 과정으로 여겼다. 내가 본 아버지의 學도 비슷했던 것 같다. 공자와 같이 도덕에 주의를 둔 것은 아니었지만, 배움의 과정과 마지막엔 항상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모습, 실천이 있었다. 주변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던 나로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커다란 나무 같았고, 그 모습을 지켜봄이 지금의 내가 나를 갈고닦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나를 삶의 목표를 세워 갈고닦았다고 생각했지만, 공자, 아버지와 달리 난 공부를 ‘수단’으로 여겨왔다. 내가 도달할 목표와 배움의 과정을 분리한 것이다. 하지만 “仁者됨”은 공자와 우리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처럼 목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까지 어진 마음을 품은 채 자신을 갈고닦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길을 되돌아보니 만약 내가 배움과 삶의 목표를 합일하여 공부해왔다면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과 사소한 실천들이 정말 많았겠다는 후회가 남는다.

“사람이 다쳤느냐”, “마음이 다쳤느냐”

요즈음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익명 뒤에 숨어 유명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는 끔찍한 일들이 뉴스에서 심심치 않은 수준 이상으로 보도된다. 사람이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어버리는, 상상해서조차 안될 세상의 모습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세상일수록 공자, 맹자를 비롯한 현인들이 입을 모아 도달하려 했던 仁者の 경지에서 배움을 얻으려는 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것 같다.

“廐焚。子退朝，曰：“傷人乎？”不問馬。” - <논어 향당>

“공자의 마구간에 불이 났다. 조정에서 퇴근한 공자는 “사람이 다쳤느냐”라고 물었지, 말에 대해 묻지 않았다.”

공자가 사람의 생명을 여기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대목이다. 이와 더불어 공자는 ‘순장’을 악습으로 여기고 단절하고자 했던 현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형을 만들어 고인과 함께 묻는 사람조차 후손이 끊길 것이라며 공자가 했을 것이라고 믿기지 않는 강하고 날카로운 말을 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자라면 더욱이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 시대에서는 점점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 또한, 마음이 남아있더라도 그 마음이 약하니 사람은커녕 동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아버지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 중 한 명이다. 그것도 본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난 누구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한 개인의 마음이 먼저 수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상처로 남게 되는지 또한 너무나도 잘 안다. 요즈음 시대의 仁者라면, 공자가 “사람이 다쳤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나와 타인에 “마음이 다쳤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게 된 사람들의 내면과 사정을 들여다보면 대개, 어찌면 전부가 마음의 상처가 깊고 깊어 그렇게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맹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재하는 인의예지를 잃어 사람을 해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선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 던져 선을 회복하고 요즈음 같은 불선과 악으로 유혹하는 요소들이 팽배하는 시기이더라도 자신을 수양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맹자의 “측은지심”이 담고있는 뜻처럼 이 질문을 시작으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한다면, 서로의 아픔을 측은히 여기며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을 다시 따뜻하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仁에 왕도는 없다.

인(仁)함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그것을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것을 깨우쳐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방식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각자의 위치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신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품격”을 찾아가면 된다. 이것이 앞서 “목표의식”과 “생명의식”이라는 공통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범위에서의 “仁者の 품격과 자격”에 관해 이야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없이 존재할 인의 가지 중 “나의 인(仁)”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불어 내가 가야할 길을 다짐해보려 한다.

나의 이정표, 나의 仁정표

“天將降大任於斯人也 必先勞其心志 苦其筋骨 餓其體膚 窮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 <맹자 고자>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내리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의지를 괴롭게 하고, 그 몸을 고생스럽게 하고 궁핍하게 하여 행하는 일이 잘 되지 않게 한다. 이것은 마음을 분발시키고 인내심을 기르게 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함이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내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되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수없이 꺼내어 읽힌 글귀이다. 아마 종이로 들고 다녔다면 이미 다 해져 없어졌을 거다. 나 스스로 의심이 겹잡을 수 없이 커지며 한없이 불안해질 때, 이제는 얼핏 되새기기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는 참 고맙고 소중한 말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9년째 되는 해이다. 쓰고 보니 10년이 되어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어머니와 내 어린 남동생은 그때를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여유롭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팠고 동생은 나 대신 그런 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둘은 나만큼은 여유롭길 바랐다. 내가 하고싶어하는 공부를 하라고 말하며 전혀 불평하지 않는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어머니와 동생은 일을 하고 있다. 가장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나만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어떤 죄보다 무거운 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 안고 가야 할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죄책감”과 “공부와 목표의식” 사이에 딜레마가 존재했다면 이제는 죄책감을 조금 덜어보려 한다. 가족이 겪는 고단함과 고생을 외면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나의 길을 온전히 걸어서 훨씬 더 넓고 큰 사람이 되어 상상도 하기 힘든 커다란 행복을 선물해주고 싶다.

이제는 아버지가 제시해준 이정표의 끝에 도달하더라도 나의 힘 스스로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의 부재를 계기로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고 어머니와 동생에게 마음의 빛을 지며 공부하는 지금까지를 살며, 내가 앞으로 품어야 할 태도와 목표의식이 뚜렷해졌다. “평생을 노력하며 환원하는 것”이다. 평생을 노력한다고 하니 갑갑하고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렵고 원대한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여유를 갖출 능력을 쌓고 15살에 세웠던 “가족과 주변의 행복”을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의 실천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움과 다르게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 감사한 마음과 목표의식을 간직한 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가족들 말고 진 빛도 전부 기억하고 있다. 제도와 복지로써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준 나라와 대학교, 먼저 다가와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친구들까지 전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힘든 시기를 겪은 만큼 진실로 어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족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절실하고 고마운지 너무 잘 알기에 그 처지를 공감해줄 테고 기회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껏 내가 느껴온 어려운 감정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고통을 홀로 품고, 훨씬 더 무거웠을 짐들에 무너져 그러한 선택을 한 아버지를 어린 마음에 미워했던 과거의 나를 뼈저리게 반성한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3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화요일/11:00~13:00
학부(과, 전공) 학번: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2022311906	성 명	한글: 이수혁 한자: 李洙赫
담당교수: 김종석교수님		검인

제목: **제목을 꼭 써 주세요!**

仁, 두 사람 “二人”과 사람의 두가지 “人二”.

두 사람. 二人, 이 단순히 두명의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두글자의 한자를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머리속에 떠오르게 된다. 뭐 다양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라던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두 애인, 엄청나게 절친한 죽마고우 두 친구 그리고 철천지 원수 관계를 지니게 된 두 사람의 앙숙까지. 무럭무럭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두글자 二人. 이렇듯 세상에 태어난 마주하게 되는 두 사람들이 서로 미우나 고우나 관계를 맺어 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이 모습, 사람들이 서로 조우하여 관계를 맺어가며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모습이야 말로, 두 사람의 만남 仁이라 할 수 있다. 옛날 사람들도 이를 분명히 알았음에 틀림없다. 나보다 한자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니깐. 후한 시대 허신이라는 사람은 나와 마찬가지로 이 仁을 두 사람간의 관계로 해석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됨을 말하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인이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다. 어질다는 것은 즉 남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다른 사람과 하나되는, 즉 공감이라는 행위를 통해 타인을 알아가고, 이해하며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야 말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자한,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한 마디로 단순히 표현한 어질다라는 말을 들어보면, 인자한 할아버지가 저절로 떠오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가지 다른 입장과 관계를 갖고 마주하게 되는 두명의 사람 사이에서 단순히 이런 인을 공감이나 사랑이라는 한가지 말로 정의내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보면, 아내와 남편사이에는 사랑이나 믿음, 절친한 친구 사이에는 신뢰와 우정 등이 있는데 이런 서로 다른 감정을 인자한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주는 마음처럼 하나로 보는 것은 웃긴일이다. 그러므로 ‘각각 다른 주체간의 감정을 단순히 공감이나 존중이라고 뭉뚱그려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인은 하나의 사전적 의미처럼 단순히 한 줄로 서술형처럼 정의 내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이제야 왜 공자가 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받았을 때 각각의 제자 마다 여러가지 답변을 내렸는지 알 것 같았다. 이는 단순히 모든 상황에서 같은 맥락의 사전적 정의로 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자가 인에 대해 답했던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오직 어진이가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감정 판단의 근거에 따라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건전하고 상호 존중관계에선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 인간다울 필요가 있다.’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말, 이런 기본적이고 인간으로서 당연한 말들의 모임인 인으로 가르치고자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런데 이 仁을 二人이 아니라, 人二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두가지 마음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자신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착한 나부터, 놀기 좋아하고 게으른 나, 모든 것에 무심정한 나,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나까지 다양한 면모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나들을 크게 두가지로 바라보게 되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나와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나의 두가지 마음은 악한 나와 선한 나로 구분하는 것이 더 뚜렷하지 않냐고 말한다. 물론 악한 나와 선한 나는 모든 내 행동의 구분이 될 수 있는 뚜렷한 나의 속성이다. 하지만 나는 나의 행동의 근거인 선인, 악인로서의 나가 아니라, 나를 더 잘 알고, 스스로를 조화롭게 사랑하는 인자라 할 수 있는 나를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오히려 싫어하는 나로 人二, 나를 두가지 특성을 가진 존재로 정의 내린 것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할 수 있는 나 마저도 위하지 않는 ‘나’를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仁, 어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와 가장 가까운 자신마저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이라는 마음을 속으로 곱씹어 보았을 때, 내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오직 어진이가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라고 하였던 말이 人二의 관계인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나’가 나를 미워하고 좀 먹었던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어진이에 도달하여, 나의 잘못된 부분은 미워하고 반성할 줄 알며, 잘한 부분은 스스로 칭찬할 수 있고 나서야, 二人의 관계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해석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다. 요즘 사회에서의 개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지켜볼 수 있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없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다른 많은 사람과 만나고 교류해야 하는 얇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갈 시간도 없이 남을 알아가야한다. 이런 사회에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사랑받아야할 나를 방치하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랑을 갈구하고 원하는 어찌면 자기 파괴적인 사회에 몰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를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맹자 이루편에는 “自暴者 不可與有言也 自棄者 不可與有爲也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과는 함께 말할 수 없고, 스스로를 버리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야 말로,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타인에 대한 인에 앞서서, 자신에 대한 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또한 인간 관계에 있어 항상 사랑을 주고받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인간 관계에 있어 남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 자신에게 마저도 공감을 느낄 수 없고, 버려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위로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되면, 이를 순전히 자신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자신을 좀 먹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여기서 내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한다. 어찌면 사람들은 “에이 뭐 남들 하는 고민했네” 라거나, “이건 흔한 일이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깎아 내리고, 남들과 비교해 오며 살아온 사람들 중 하나이다. 특히 내가 옛날부터 그나마 자신있었던, 그리고 목표없이 하고자 했던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많은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들은 현재 대학교뿐만 아니라, 수험생 시절이나, 중, 고등학교 시절 공부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을 것이다. 혹은, 주변인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았던 주제이거나 나름대로 자신있던 것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성균관대학교라는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공부라는 일종의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 학교이므로 말이다. 이런 힘든 공부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설정한, 혹은 자신의 꿈이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표들이다. 그러나 나는 남들과는 좀 다르게 다른 원동력을 이용하여 이를 지속하고자 했다. 바로 나를 갉아먹는, 나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며 남과 비교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던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인은 다른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간의 존중이자, 나의 두 면모에서 나를 위할 수 있는 나가, 나를 미워하는 나까지 포용하여 진정으로 나에 대해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나는 나를 채찍질하며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 속이며,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나 스스로에게 어질지 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건강한 교류와 관계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단순히 일반적인 혹은 가상의 라이벌과의 비교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비교로 옮겨가게 되었고, 이는 나를 옴아매게 되었다. 내가 가진 열등감이 그 친구에게 질투로 다가가게 되었고, 대화에서도 짜증이 늘어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해 몸져 누웠을 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혼자 누워서 생각해보았다. ‘내가 가장 가까운 주체인 나마저도 사랑하지 않고, 나를 혹사시키고 미워한다면,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내가 보이는 이런 자격지심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며 나를 아끼고 위하지 않았던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절친했던, 질투심을 느꼈던 친구에게 털어놓게 되었다. 부끄럽게도, 그는 내 모든 것을

이해해주었다. 그는 나에게 한 때 자신도 그런 적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 대신, 그는 내가 나의 부족한 면모를 스스로에게 공격적이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그는 자신을 존중하며 부족한 면모를 보완해나갔던 것이었다. 나는 그의 용서와 태도를 통해 수오지심을 느낄 수 있었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나를 용서하고 조언했듯 남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완전히 남과의 비교를 그만두고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 비교를 통해 나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것과는 달리, 나를 어느정도 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스스로에게 인자한, 너그러운 人二의 단계에서의 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인에 대한 두가지 견해나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仁이라는 한자를 보니 모양 자체로도 자기가 가진 속성을 잘 나타내는 것만 같았다. 절대로 만나지 않을 것만 같던, 끝까지 쪽 뺏어갈 것만 같았던 두가지 평행한 선 二이 결국 각각의 길, 한점으로 수렴하게 되는 서로에게 향하는 길을 지나 결국 한점에 조우하여 새로운 선을 그어가는 亅이라는 모습을 보면, 二人이나 人二나 마찬가지로 다른 성질을 띠던 두가지 요소가 만나 하나로 융화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만 같다. 미워했던 나까지 사랑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 “仁 인”.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넘어 남까지 사랑할 줄 아는 “仁 인”. 형식상 두가지로 구분했지만 이런 두가지 인들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두가지 인의 조화마저도 결국 인이라 볼 수 있기에.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마음 한편으로 이 사회가 조금 더 너그러울 수 있는, 인간다울 수 있는 인의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3학년도 제1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월요일 15시~17시
--------------	------------	--------------------

전자전기공학부(과, 전공) 학번: 2021312627	성명	한글: 전윤서 한자: 田閔瑞
담당교수: 최 다 은		

주제: 인(仁) - “인자의 품격과 자격”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제목: 슬램덩크에서 찾아보는 인(仁)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제목부터 다소 파격적이라고 느낄 수 있겠다. 슬램덩크에서 찾아보는 인(仁)이라. 이런 신선한 주제의 원천부터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일단 아빠는 슬램덩크의 엄청난 팬이신데, 그는 90년대 대학생 시절부터 슬램덩크의 열렬한 독자였고 집 서재에는 오래된 강백호 포스터와 30년이 다 돼가는 1994년도 출판된 슬램덩크 전집이 있다. 90년대에 인기가 매우 많았던 만화였기 때문에 “누구나 슬램덩크를 좋아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우리 아빠는 그 만화를 평범하게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는 이 만화에 대해서 3일 밤을 새워서 말해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이 만화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행동과 생각, 대사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부적처럼 믿고 싶어진다고 했다. 나는 아빠가 슬램덩크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의 마니아 기질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나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만화를 보며 자랐고, 유감스럽게도 그의 마니아 기질까지 닮은 건지 나는 아빠와 똑같이 슬램덩크를 좋아하게 되었다. 아빠는 만화뿐만 아니라 농구 그 자체도 좋아해서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말마다 농구 경기를 보러 다녔고, 종종 아빠와 1-on-1 (일대일 시합)도 가볍게 했었다. 지금은 어느새 주말 저녁 함께 맥주를 마시며 NBA 경기를 볼 수 있는 딸로 자랐다. 이렇게 우리 부녀지간은 농구가 빠지면 섭섭할 정도로 우리는 농구를 사랑하고 슬램덩크를 사랑한다. 올해 초 슬램덩크가 영화로 개봉해서 아빠와 함께 보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한 대화였다. 나는 대화 중에 ‘정대만의 다정함’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유난히 잊히지 않는다. 이 대화는 내가 슬램덩크에서 인(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시발점이기도 하다. 인(仁)을 영어로 표현하면 ‘loving others’, 즉 인이란 타인에게 주는 관심과 사랑이다. 만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슬램덩크 속 그 어떤 등장인물보다 정대만만큼 사랑이 많은 인물은 없을 것이다. 그냥 단순히 성격이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착하거나 정도(正道)를 지키는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대만이 유독 측은지심(惻隱之心)과 불인지심(不忍之心)이 많은 인물이라는 것이다. 맹자는 측은지심 혹은 불인지심이 인의 단서라고 말한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엄청나게 바른 인물이 아닌데도-오히려 복산고 다섯명 중 나쁜 짓을 가장 많이 했다.-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태도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아빠는 정대만에 대해서 “개가 은근히 정이 많다니까. 제일 애 같으면서도 제일 어른 같아.”라고 말했다. 여기서 ‘정이 많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정(情)은 사전적으로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혹은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을 뜻한다. 보통 누군가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쉽게 지나치지 못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 즉 말에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인가 생각해 보면, 불쌍한 것을 보고 측은하게 여기거나 남의 불행을 내 일 같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정(情)이 많다는 것은 측은지심(惻隱之心)과 불인지심(不忍之心)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런 정이

사랑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情)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처럼 여기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 누군가의 감정에 기꺼이 공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랑도 많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인(仁)의 단서가 된다. 그렇게 정대만은 진실로 인(仁)에 뜻을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대만의 인(仁)에 대해 간단하게 논해 봤는데, 사실 근거로 든 그의 행동이나 대사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슬램덩크 속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설명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이다.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려는 이유는 인(仁)이라는 것이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동등하게 여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경우에는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仁)은 반드시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관계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만화 속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해석해보려 한다.

송태섭과 정대만 사이의 仁

송태섭과 정대만은 슬램덩크 내에서 특별한 관계성을 가진다. 지금 둘은 팀에서 서로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동료라고 여기지만 그들은 서로를 혐오하던 시기가 길었다. 그들의 갈등과 이를 극복한 과정을 논어를 통해 논할 수 있다.

唯仁者能好人 能惡人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

여기서 공자는 타인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말한다. 이 구절에서 ‘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인(仁)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仁)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고 했다. 인(仁)에 뜻을 두는 사람들은 인간다움을 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남을 자신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들이 미워한다는 것은 사람을 단편적인 이유로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仁)에 반하는 행동과 말을 했을 때 즉 타인의 불행을 무시하며 공감하지 않을 때 인간답지 못하다고 느끼고 또한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송태섭과 정대만이 서로를 미워하던 시기에 과연 그들이 각각 인(仁)에 뜻을 두는 사람들이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다. 먼저 그들이 미워하던 시기는 송태섭이 고등학교 1학년, 정대만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송태섭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태섭은 그 당시 농구부에 들어가긴 했지만 방향을 많이 하던 시기였다. 크면 클수록 죽은 형의 빈자리는 많이 느껴지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어서 농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팀 내에서 문제아로 불리며 활동했다. 태섭은 이 당시 걸으로는 빼딱한 문제아처럼 행동했지만, 정서적으로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있어서 나중에는 거의 자살행위에 가까운 위험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때의 태섭은 과연 인(仁)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이때의 태섭이 인(仁)에 뜻을 두는 사람이었지만, 상황이 힘들어 표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인(仁)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당시 태섭은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럼 과연 정대만은 둘의 갈등이 빚어진 시기에 인(仁)에 뜻을 두는 상태였을까? 정대만의 ‘헛된 시절’을 안다면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절대 아니다. 그는 그때 당시 의도적으로 인(仁)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다녔다. 사실 원래 성격으로 보면 슬램덩크 속 그 어떤 인물도 정대만보다 인(仁)한 사람은 없다. 그만큼 사람을 좋아하고, 그만큼 측은지심(惻隱之心)과 불인지심(不忍之心)이 강하고, 그만큼 정이 많고 인간다운 사람은 없다. 정대만은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인(仁)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아마 자기는 자신이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냥 그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의 의식보다 먼저 앞서 타인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도 인(仁)에 반하는 행동만 골라 저지르던 시절이 있다. 정대만은 고등학교 신입생 시절 유망주로 활동하다가 무릎 부상을 크게 겪은 후 일탈의 길로 빠지게 된다. 그때 박철이라는 깡패 친구와 어울리

며 사람도 때리고 돈도 뺏고 온갖 악행을 다 하고 다닌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런 악행을 하면서 정대만의 다정한 본성이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박철과 영걸 무리와 악행을 저지를 때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낀다. 또 사람들을 위협하긴 하지만 직접 나서서 때리진 못한다. 박철이 옆에서 죄 없는 사람을 때리고 있으면 말리기도 한다. 정대만은 심지어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더 안 아프게 때리는 방법을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대만의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이러한 시기를 ‘헛된 시간’이라고 표현하며 후회하는 장면도 나온다.

游氏曰: “好善而惡惡, 天下之同情. (유초(游酢)가 말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천하의 동일한 감정이다.) 然人每失其正者, (그러나 사람이 때면 그 바름을 잃게 되는 것은) 心有所繫而不能自克也. (마음이 매인 것이 있어 자신의 사적 욕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惟仁者無私心, 所以能好惡也.”(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심이 없어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다.) <논어 이인편 제 3장>

<논어 이인편 제 3장>에서 말하듯이 정대만이 바름을 잃게 된 것은 마음이 매인 것이 있어 자신의 사적 욕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 욕망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다. 정대만의 사사로운 감정이라면 자신의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오래 뛰지 못한다는 절망감이 가장 컸을 것이다. 또, 부상으로 인해 기약 없이 쉬고 있는 자신에 비해 입학 동기인 채치수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으니 거기서 오는 부러움과 시기, 질투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정체가 되어 있고 쓸모가 없어졌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사사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바름을 잃게 된 것이다. 송태섭의 사사로운 감정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가장 큰 것은 형의 빈자리에서 오는 상실감일 것이다.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유달리 붙어 지내던 형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태섭이가 인(仁)을 잃는 계기가 된다. 또 자신이 고등학교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농구를 하게 되면서 형의 생각을 더욱 많이 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형을 제외하고는 친구가 많이 없었기에 고등학교에서도 동료들과 소통하며 하는 농구에서 적응하지 못해 문제아라고 불렸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소외감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사로운 감정들로 두 사람 모두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기보다 반대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따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엇나간 둘은 진심을 다해 피 튀기며 싸우게 된다.(비유적으로 피 튀기게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둘은 실제로 주먹다짐을 한다.) 공식적인 내용으로는 정대만이 농구부를 끝장내려 친구들을 데려간 날 농구부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이 그동안 농구가 하고 싶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농구부에게 사과한다. 이후 일탈과 반항의 상징이었던 긴 머리를 자르고 예전처럼 농구 코트로 돌아오며 정대만의 ‘헛된 시간’은 막을 내린다. 만화의 줄거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만,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전부가 아닌 걸 분명히 알 것이다. 정대만은 실은 농구를 누구보다 하고 싶었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농구를 하기 싫다고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송태섭을 만나고 속에서 들끓는 감정이 결국 표출되고 만다. 자신처럼 똑같이 인(仁)을 잃었지만, 농구를 계속해서 하는 송태섭이 맘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를 시작으로 대만은 태섭과 농구부가 거슬린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대만이 자기가 농구에 대한 진실된 감정이 표출되는 계기이다. 둘이 결국 복산고 농구부 주전으로 활약하며 친해지게 되는데, 송태섭은 정대만에게서 죽은 형의 온기를 느낀다. 형의 다정함이 정대만의 다정함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사실 정대만은 송태섭에게 아주 어렸을 때도 인(仁)을 나눴던 적이 있었다. 태섭이가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당시 형을 잃고 얼마 되지 않아 혼자 농구 하던 태섭을 지나가던 정대만이 보게 된다. 이 장면은 송태섭은 기억하고 정대만은 기억하지 못하는 정대만의 다정함이다. 정대만은 홀로 농구 하

던 태섭을 지나치지 못하고 같이 1-on-1을 한다. 태섭은 처음본 자신에게 다정하게 농구를 알려주는 정대만을 보고 형과 겹쳐 보게 된다. 나는 이 장면이 슬램덩크 전권을 통틀어 정대만의 인(仁)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대만은 그런 인간이다. 혼자 농구 하는 초등학생을 지나치지 못하는, 자신이 일탈하러 찾아간 무리 안에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게 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인 것이다. 나는 이런 정대만의 성격을 송태섭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와 주먹다짐을 할 때도 그가 그때의 그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송태섭의 인(仁)이 가장 드러나는 부분은 태섭이가 국내 최강팀 산왕공고와 경기를 하기 전에 엄마께 편지를 쓰는 장면이다. 태섭은 자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채로 지내더라도 엄마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잘 해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편지를 썼다. 평소 엄마에게 무뚝뚝한 아들이 중요한 경기 전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는 점에서 그의 다정함, 즉 인(仁)이 느껴진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서로는 서로의 인(仁)함에 영향을 받고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서로의 귀인인 것을 운명적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슬램덩크의 두 등장인물 송태섭과 정대만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인(仁)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예시가 만화 속 두 인물이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훨씬 더 많은 인을 느끼고 나눈다. 비 오는 날 엄마가 딸에게 우산을 기울여주는 것부터, 뒷사람이 부딪히지 않게 문을 잡아주는 것까지 생활 속 모든 것이 인(仁)이고 사랑이다. 궁극적으로 남을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 논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다. 남에게 사랑을 주는 것, 남에게 사랑을 받는 것, 누군가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사랑과 배려가 느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살아가게끔 하는 힘이 되지 않나 싶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고, 좋음을 좋다고 하고 나쁨을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인(仁)을 더욱 나누고 쌓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한 단계 더 바르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